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95 1982년 12월 2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December 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TORONTO, CANADA M5S 1A5
DEC 2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온」주 고등학교 개편

84년부터 13학년 폐지

문교장관 "엄격한 규율 필요"

온타리오주의 고등학교(High School)의 학제가 바뀌어, 84년도 부터는 13학년제가 폐지되고 필수과목수가 늘며, 규율이 보다 엄격해진다.

30일 문교장관 베티·스티븐슨여사가 발표한 개편학제에 따르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9학년부터 시작되는 5년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13학년을 없애는 대신 4년동안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대학진학 자격을 얻게 된다.

◆ 스티븐슨문교장관

이같은 문교부의 학제변경은 토론토 교육위원회의 전 국장인 던컨·그린씨등이 제출한 고등학교 교육제도 재평과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후 이루어졌다.

스티븐슨장관의 학제개편은 그린씨팀의 대부분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학생들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34,000명의 회원을 가진 온타리오 중고등학교 교사연맹은 학제개편을 적극 지지했다.

말콤·부카난 연맹총재는 13학년 폐지는 실제로는 그다지 혁신적인 것이 아니며, 지금도 4년내에 13학년 과정을 끝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주내의 102,000교사들을 대표하는 온타리오교사 연맹도,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개편학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과목 증강〉

지금까지 문교부의 규정으로는 9개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고교졸업이 인정됐으나, 84년 가을부터는 필수과목의 수가 16개로 늘어난다. 필수16과목은 영어 5개과목, 수학 2개, 과학 2개및 불어, 지리, 역사, 고등사회과학, 체육, 미술 각1개과목과 상업이나, 기술과목중 1개과목이다.

〈13학년제 폐지〉

13학년이란 학제자체는 없어지겠지만, 대학진학 학생들의 학습량은 종전과 다름없다.

지금 12학년까지는 최소 27과목, 13학년까지 33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했으나, 새 학제로는 12, 13학년 구별이 없이 최소 30학점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똑같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주어지며, 84년부터 3년간 잠정 기간을 거친후 86년에는 전반적으로 실시된다.

〈대학진학학생 필수학점〉

대학진학학생은 최소 6개과목의 "온타리오 아카데믹 코스"(OAC)를 끝내야 한다. OAC는 온타리오주 문교부가 각 대학들과 협의해서 내놓은, 말하자면 대학입학시험과목이다. OAC도 고교졸업에 필요한 30개 이수과목중에 포함된다.

4년간 30학점을 이수못한 학생은 4년반이나 5년에 걸쳐 총 36학점까지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진학 희망자가 아닐경우 보통 4년내에 고교과정을 끝내야 한다.

〈규율보장〉

규율이 너무 느슨하다는 학부모나 교육관계자들의 불평이 이번 학제개편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규율보강을 위해 각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업평가 기준변경〉

지금까지는 6개 등급으로 나누도록돼 있으나, 새 학제에 따라 3개로 나누어진다.

(1)진급반: 대학이나 코뮤니티·칼리지 진학희망자들.

(2)종합반(General): 코뮤니티·칼리지나, 직업전선 진출자.

(3)기초반(Basic): 직업전선 진출자.

스티븐슨장관은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약 75%를 이루는 종합반과 기초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즈네프 선전 지명등 이름으로

(모스크바) 사망한 전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의 이름을 그의 업적을 기념하여 소련각지에 널리 남기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밤 국영 타스통신이 전한 소련공산당중앙위, 최고회의간부회,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하면 우선 소련 최대의 트럭공장이 있는 볼가강가의 나베레지누이·초르누이시(인구 약 30만)가 「브레즈네프시」로 개명되며, 지명으로서는 모스크바와 그의 출생지 도네프로제드진스크 지구, 모스크바, 레닌그라드등 5개도시의 광장에 브레즈네프의 이름이 붙여진다.

또 원자력 쇄빙선, 군함, 객선, 군학교, 탱크사단, 발전소, 공장, 농장등에도 「브레즈네프」의 이름이 붙여진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3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축구 준결승전에서 북한팀이 쿠웨이트에 3:2로 지자, 광분한 북한 선수들이 심판을 마구 두들기자, 인도경찰이 심판을 구하기 위해 폭동진압용 방망이를 들고 나섰다. 북한선수들은 쿠웨이트의 결승점이 된 주심의 페날티·킥 선언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소동을 부렸다. 인도경찰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중이다.

한인회장인준경위 말썽

선관위, "불법"이라 주장

장순채씨의 한인회장인준 과정을 놓고 한인사회가 떠들썩한 가운데, 동우회, 호남향우회, 코리아타운번영회등, 한인사회의 뜸직한 단체들이 장씨의 회장당선 이후 두 동강이가 났다느니, 인준자체가 "불법"이라는등 갖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다.

한편,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량)도 30일밤 모임을 갖고, 27일의 한인회장 인준을 위한 임시총회는 회칙을 위반, 총회의장인 박인순한인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을 박탈한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박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중도에서 퇴단했고, 의사봉은 회장이외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29일 말했다.

지난77년부터 3대에 걸친 단독후보자 인준절차를 보면, 회장인준에 관한 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절대권한을 가졌던 전례가 있다.

77년 8월 써니브룩공원에서 개최된 강신봉 단독후보에 대한 인준은 파도운 영위원장이 주도, 표결방법을 박수로 하여 인준을 마치었다. 81년 1월 강우석후보의 인준도 허규강회장대신 김승택선관위원장이 주도했고, 81년 8월 현 박인순회장의 인준도 김순창선거관리위원장의 선포로 끝났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볼때, 27일 총회에서 김문량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을 하지도 않았고, 위원장외에도 4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회장이 인준절차를 진행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인회를 아끼는 회원들의 주장이다.

장씨가 총회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회장이 되긴했으나, 인준절차의 적법성등이 문제가 돼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

이외에도 역대한인회장단은 이사회와 마찰등으로 중도사퇴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이사회와 장회장 단간의 관계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사회와의 마찰, 한인사회의 반기등은 장순채씨가 오래전부터 예상해 온듯, 장씨가 이기훈씨와 변의섭씨를 러닝·메이트로 교섭할때 중도사임을 안한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선수들 아시안게임에서 행패

축구준결승 패한후 심판에 폭행

(뉴델리--=한국신문공동취재반)

북한은, 30일의 축구준결승에서 난투극을 벌여 말썽이 되고 있다.

쿠웨이트에 3:2로 패한 북한축구팀은 경기후, 주심판정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했다. 이를 말리던 경찰에게 선수들과 본부석에 있던 북한임원들이 가세, 싸움은 집단난투극으로 번졌다.

이 사건후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 부라·신씨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축구선수 1명과 경찰관 4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하고, 사고원인을 인도경찰이 조사중이며, 이사실을 인디라·간디 인도수상에게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종반으로 접어든 아시안게임의 30일경기에서 한국팀은 금메달3개를 추가, 도합 금16, 은19, 동28로 중공, 일본에 이어 3위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이날 경기에서 테니스혼합복식(신순호·김천호조)과 여자복식(신순호·김남숙)에서 2개에 금메달을 거두었다. 또 사격에서도 박종길선수가 권총 25m스탠다드부문(565점)에서 금메달을 땄다.

은하 보석
다이야몬드·순금 란작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화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특별요금으로 모십니다!
출발일자 자유귀환
12월 5일(일)
12월16일(목)
12월19일(일)
12월30일(목)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여행계획과 간편한 수속,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드리겠읍니다.
SEOUL TRAVEL
631 A BLOOR ST. W
최 동 주
R 293-9970
IATA

<투자이민 안내>
ㅁ자 격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생산업(제조업)에 최소 2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
ㅁ투자금액 : 대한민국 외국환관리법및 기타 이민법등에 의해 최대한의 자산.(동산및 부동산 포함)
ㅁ투자이민 장소 : 캐나다 퀘벡주.
ㅁ언 어 : 불어. 이민면담시(1983년11월 예정) 불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
ㅁ투자이민 응모 희망기한 만료 : 1982년12월10일(금)까지.
ㅁ제출서류 : 희망자 성명및 사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공장 포함) 증빙서류.
ㅁ사전면담및 현지방문 : 1983년 1월 초순.(단, 투자이민 가능성을 사전타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함)
※사전심사에 통과된 희망자는 1983년 1월15일부터 정식수속 가능하며, 본사는 이민투자 수속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장조사및 연구와 더불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을 도와줌.
(주)현영일 국제경영Consultant
(416)444-9341 (8:00 p.m.-10:00 p.m.)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자동차 스틱커규정 변경
갱신날자 생일따라 달라

해마다 2월말경만 되면 자동차번호판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갱신하기 위해 교통부의 각 번호판교부사무실에 몰려드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의 이제는 볼수 없게 되었다.

1일부터 온타리오정부는 매년 3월1일대신 자동차소유주의 생일날 자신의 스티커를 갱신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는 차를 팔때 종전과는 달리 번호판을 보관하고 차량만 넘겨주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번호판은 자동차에 등록된 것이 아니고, 개인의 고유번호가 되며, 차주는 차가 바뀌더라도 고유번호는 갖고 다닌다.

번호판이 낡아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면허스티커갱신비에 5달러만 추가해서 지출하면 새로운 번호판을 교부받을수 있다.

이외에도 1일부터는 스티카 갱신비가 과거와는 달리 차량의 크기, 기통수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 즉, 남부온타리오주에서는 어떤 차량이건 일률적으로 스티커비로 48달러를 내야 한다.

과거에는 스티커갱신비가 4기통은 30달러, 6기통은 45달러, 8기통은 엔진용량에 따라 60달러 또는 80달러로 구분되어 적용되었다.

프렌치·리버(French River) 이북인 북온타리오주는 차량당 10달러에서 24달러로 인상된다.

83년도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는 과도기적인 해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규정이 기틀이 잡게 되면,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인 제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교통통신부 관계자는 말했다.

82년도 스티커의 유효기간은 여전히 매년2월28일까지이다. 그러나 이 날짜가 지나게 되면 자동차소유주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일이 오기전에 면허국(Licence Bureau)에 가서 스티커를 갱신하라는 통보가 온다.

자신의 생일이 되기까지 과도기에는 임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

예를들어 7월에 탄생한 사람은 월4달러에 7개월을 곱한 28달러만 지불하면 되고, 생일이 되면 다시 면허국에 가서 다음 생일이 돌아오기까지의 12개월분 스티커를 구입해야 한다.

북미에 마약 유통망 형성
일본조직폭력단 미국진출

(워싱턴=연착) 스미스 미국법무장관은 지난 24일 포린·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조직폭력단이 하와이와 미국서해안에 진출이 심해, 그들이 새로운 마약 유통망을 미국내에 형성하고, 미국의 조직과 손잡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일본폭력단의 미국진출에 대해 스미스장관은 "현재 그들은 미국내 합법적 기업을 매수하고, 다른(불법)활동을 위장하고 있다. 일본의 폭력단이 미국내에 마약의 유통망을 이미 확립한 것은 아니나 멀지 않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조직과 손잡을 가능성도 있어, 그렇게 되면 새 마약루트가 생기게 된다."고 경계를 촉구했다.

그는 또 "일본도 히로인과 각성제 문제를 안고 있고, 인접국으로부터 마약류가 흘러 들어옴에 골치를 앓고 있음을 알았다. 미·일 양국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기밀히 해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본 조직폭력단의 미국상륙은 최근 1, 2년내에 갑지기 문제화되고 있고, 「야쿠자」(깡패)란 용어가 미국에서 외래어로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교민동정

◆임윤식(인쇄소 경영)=월슨인쇄소를 경영하는 한편 12월1일부터 황용형부동산주식회사 세일즈맨일을 맡아 하게 된다.

집, 가게, 토지등 부동산 매매를 원하시는 분에게 최대한 봉사하겠다고.(연락전화: (B)449-8644, (R)638-6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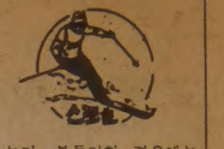
◆김영수(컴퓨터 프로그래머)=온타리오주정부 컴퓨터기사로 일하는 한편, 부업으로 공병우한영타자기 토론토총판을 개업, 매우 분주하다.

2세들의 한글교육과 사무용으로도 적합한 이 타자기는,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주문이 늘어났다고 김씨는 전했다.

전화는 245-0995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스키상식>
초보적 기술습득



박경택(한인스키협회장)

(3)스노우 플로우 턴(Snow Plow Turn)

묘미는 턴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묘미 때문에 스킹하는 시간의 90%이상을 턴에 소요하고 있다. 멋진 턴은 그리 용이하게 익혀지지 않는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Snow Plow Turn은 스키를 역U자형으로 지치면서 회전하는 기술이다.(이 기술의 목적은 회전후반의 엣징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늦춤으로써 다음 회전의 모멘트로 삼는 스키조작을 습득함이다. 이 모멘트의 조작은 고도의 회전기술로 발달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Snow Plow Turn의 요령은 양스키의 엣징의 바란스를 조정하여 회전을 유도하며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설면에 저항을 주어 회전한다.

이는 상체를 좌우로 경사지게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의 움직임으로 하중및 엣징을 조작한다.

▲연 습▲

1) 스키선단(Top Bend)이 많이 벌어지면 나쁘다.
2) 상체를 흔들거나 허리를 돌리지 않는다.
3) 손을 좁히지 말고 또 어깨의 경직한 자세는 운동의 리듬을 깨 버린다.
4) 뒤로 굽혀앉으면 스키가 끄일 염려가 있으며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없다.
5) 한쪽 턴만 치우쳐 연습하면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한다.
6) 발목으로 엣징을 조작하지 말것.

이상의 초보기술습득으로 스키를 지칠수는 있다.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어느정도 움직일수 있을때에는 많은 스키장의 수칙과 안전이 필요하다.

▲스키장 수칙▲

1. 용구취급을 바르게
2. Stopper(흐름방지끈)을 꼭 사용한다. 스키가 흘리게 되면 큰 소리로 알려준다.(스키화로부터 스키가 빠져 나갔을때 부상을 주거나 잃어 버리기 쉽다.)
3. 스키에 방해가 되는 곳에 스키용구등 기타 소지품을 방치해 두지 않는다.
4. 놓아둔 타인의 스키를 필요없이 손대지 않는다.
5. Slope도중에 정지 할때는 한쪽가에 붙어 정지한다.
6. 스키구두로 걸음으로써 코오스구멍을 내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코오스 밖을 걷는다.
7. 넘어져서 생긴 구멍은 될수있는 한 빨리 메꾸어 놓는다.
8. 코오스의 표식을 움직이면 안된다.
9. 스키 페트롤이 지시하는데로 따르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0. 일반코오스를 점유해서 연습하지 않는다.
11. 넘어지면 될수있는대로 빨리 일어나서 코오스를 비우며 바인딩이 벗겨졌으면 코오스 밖에서 고친다.
12. 앞이 보이지 않는데에서는 스피이드를 줄이거나 일단 정지해서 확인한다.
13. 추월할때는 상대방움직임을 보고 자기의 방향을 알린다. 추월하는 사람이 피해가는 것이 원칙이다.
14. 리프트는 도중에서 타거나 내려서는 안된다.
15. 의자나 토우프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16. TBAR에 앉으면 넘어질 수 있다. -(계속)-

턴의 묘미, 스키시간의 90%
스키장수칙과 안전 준수해야

金聖鍾作
東京의 사나이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121>

출발 ②

사나이의 맹렬한 애무에 원은 신음만…

원은 두 팔로 그의 머리를 휘어감고 바싹 끌어당겼다.

『편찮아?』

그가 물었다.

『편찮아요.』

『언에는 죽여버릴테야.』

『맘대로 하세요.』

그들은 곧 화합해 들어갔다.

햇빛이 침대 위의 그들을 어루만졌다. 땀에 젖은 사나이의 동판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자지러질듯한 여자의 숨가쁜 신음소리에 아랑곳없이 사나이는 맹렬히 헤쳐들어가고 있었다. 파스톤의 추진력이 질기고 대단해서 좀처럼 끝러날 것 같지 않았다.

『아, 숨막혀요…죽을 것 같아요…이제 그만…』

『항복하나?』

그는 마상의 왕자처럼 늠름하게 말했다.

『살려줘요.』

『안돼. 한 가지가 빠졌어.』

『사랑해요.』

그제서야 그는 원의 입에 입을 맞춘 다음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함께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 사나이가 다시 몸을 탐하려고하자 그녀는 먼저 밖으로 도망쳐나왔다.

여자가 코피를 끓이는 동안 그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면도를 했다. 하루만 깍지 않아도 털북숭이가 된다. 문득 조금 전에 겪어은 [illegible] 생각이 났다. 그는 멈칫했다. 턱밑에 금방 피가 맺혔다. 피를 닦아낸 다음 면도질을 마저 끝냈다. 그것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전[illegible]와 같았다. 예감이 이상했다.

세수를 한다음 머리를 빗었다. 올백으로 머리를 빗어넘기자 얼굴이 더욱 길어보였다. 잿빛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늘어나있었다. 그는 마흔 다섯살이었다. 눈꼬리에 주름이 잡혀있었지만 [illegible]꺼풀진 두눈은 아직 [illegible]한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여자를 매혹시킬만큼 아름다와 보였다.

키는 1미터83센티. 롱다리가 [illegible]날히 길어 보이고 몸은 군살 하나 없이 미끈하게 빠어있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단련된 육체는 불규칙한 생활과 운동부족으로 근육이 많이 풀려있었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거울에 비쳐보면서 원을 오래도록 만족시켜주려면 당장 운동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원은 스물세살이었다. 스물두살 차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임이 분명했다. 지금은 별로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자연적인 생리로 [illegible] 저쪽은 상승일로에 있는 반면 이쪽은 급속도로 하향곡선을 긋고있다. 그러니 언제 주저 앉아버릴지 모르는 일이다. 상대가 아무리 [illegible]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등한 입장에서의 사랑인 것이다. 쇠약해진 [illegible]으로 젊은 여자의 사랑을 계속 요구한다는 것은 비굴한 짓이다. 그런 짓은 자존심이 결코 허락치않는다.

쇠약해져서 젊은 여자를 감당할 수없을 때는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한다. 그는 원을 사랑하고 있었다. 많은 여자들을 상대해왔지만 누구를 사랑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朴男 그림

캐런·케인양 결혼
5월중 배우 페티 와

캐나다 최고의 여성발레리나 캐런·케인(31)양이 오는 5월 결혼한다.

신랑은 36살의 배우 로스·페티씨.

이들은 다음주 정식 약혼을 발표하며, 결혼후에는 토론토에서 가정을 꾸민다고 케인양의 공보비서가 30일 밝혔다.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지난6월 토론토의 로열·알렉산더극장에서 뮤지컬 스위니·타드에서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던 페티씨가 자기 공연에 케런양을 초대한때였고, 이들은 그 이후 자주 공식석상에 나란히 모습을 나타냈다.

캐나다 웨스팅하우스회사 부사장인 케인양의 아버지는 30일 해밀톤의 자택에서 "가족들은 모두 두 사람의 결혼을 매우 기뻐한다"고 말했다.

내셔널·발레의 주역으로서 또한 세계 유명발레단의 객원출연자로서 명성을 굳히고 있는 케인양은 작년에 배우 리·메이저즈(6백만불의 사나이)와의 염문으로 화제가 되었다.

◆5월중 결혼한다고 발표한 발레리나 캐런·케인과 배우 페티씨

내셔널·발레단 크리스마스 공연

내셔널·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시즌 토론토공연이 오는 21일(화)부터 새해 1월2일(일)까지 오킹·센터에서 있게 된다.

작품은 「호두까기 인형」.

내셔널·발레의 창시자인 셀리아·프랭카여사의 제작품인 「호드까기 인형」은, 원래 차이콥스키의 무용조곡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내셔널·발레의 오타와 공연은 12월14일부터 18일께 내셔널·아츠·센터에서 있게 된다.

주역 발레리나는 캐런·케인, 프랭크·어거스틴, 하웃, 베난트등이며, 공연마다 캐스팅이 바뀐다.

티켓은 월~토 11시부터 6시까지 각 티켓트론에서, 혹은 비자나 매스터카드로는 전화 766-3271로 주문가능하다.

<독자의 광장>

한인회총회에 다녀와서

강정웅(토론토 거주)

이민사 17년, 3만교민을 대표한다는 한인회 임시총회가 오합지졸같은 집행부의 운영방법과, 막장시장의 무질서를 연상케하는 발언자들의 물지각한 언행등 입맛쓴 토요오후를 보내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 느낀바 몇가지를 적고자 한다.

공고된 3시가 훨씬 지났는데도 안내 한 사람 없이 여기저기 서성거리는 회원은 회의 시작시간을 더욱 지연시키고 있었으며, 장내정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회를 선언, 애국가와 캐나다 국가합창이 있었는데 캐나다 국가순서에는 가사와 곡을 몰라서인지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음은 유감천만이었다.

또 그날의 회의를 진행, 유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단상의 간부님들이 여러 차례 사회자로부터 아무런 양보나 허락없이 마이크를 뺏아 감정섞인 어조로 단하의 회원과 입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회장(사회자)의 절대적이고 신성해야 할 사회권을 어떻게 함부로 주고 뺏을수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또한 회장이 한참 발언을 하고 있는데, 한 간부는 수차례 귓속말로 소곤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옛날 궁중파티 석상의 시중꾼(눈에도 선한)같은 인상을 주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공중도덕과 질서가 무엇이며, 어떤 것이 회의인지를 깡그리 망각한채 의제와는 전연 다른 횡설수설식의 발언만 계속하는 분이 있었고, 정식발언권도 얻지 않고 자기 의견과 상치된다고 단상쪽으로 뛰어가서 삿대질과 고성으로 핏대를 올리며 폭언을 퍼 붓는등 당장에라도 주먹이 오고갈 험악하고 지저분한 분위기 속에서 얼렁뚱땅식의 "옳소"고함소리와 함께 새 회장단이 간단히 인준되었다.

"아하, 저러니 한인회가 밤낮 제자리 걸음이구나"고 생각되었다. 기라성같은 인재들이 등을 돌리며 냉소를 보내고 있는 이유를….

이어서 새 회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었고, 두 부회장은 인사말 한마디 없이 하단해 버렸는데, 그렇다면 부회장직은 회장그늘에 파묻혀 있어야 할 악세사리에 불과하단 말인가? 그네들께도 한인회를 이끌어갈 일단의 소견 피력과 자기 소개가 간단히 있었어야 마땅했으리가 생각된다.

그리고 장내는 오늘은 이미 누구가 인준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입김의 온 장내를 꽉 메우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여기 몇가지 제언한다면,

첫째, 회장, 임원은 시간을 내어서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데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어떨까 하는 감상적인 일군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일단 봉사를 하려고 작정했으면 용의주도하고 일사불란하게 맡은 일에 철저를 기할 일이다. 능력과 실력이 없으면 조용히 자기 일에나 열중할 일이다. 감투라면 한번해보자는, 연례적으로 한국이나 다녀오고, 왕년에 무슨무슨 직위에 있었네, 하는 식의 서글픈 욕망등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둘째, 시간을 철저히 지켰으면 한다. 적어도 한인회는 한 사람의 모여도 정한 시간에 회의를 시작한다는 풍토를 조성했으면 한다.

세째, 정기총회가 아니더라도 회의장 중앙에 대형 태극기 하나 정도는 부착하고, 식순과 애국가, 캐나다국가등은 프린트해서 누구나 쉽게 순서를 알고 부를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예산이 없다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파티 한번쯤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애국가를 봉창할 때는 음악(성악)을 아는 분이 우렁차게 리드했으면 한다.

네째, 참석하는 회원은 질서와 협조로 주최측에서 인도하는 방향으로 진정한 회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참여를 하여야 옳을 것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인기발언이나 하고, 감정섞인 언행으로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뜻있게 참여하고 있는 선의의 3자들께 누를 끼치지 않는 차원 높은 회원이 되었으면 한다.

결론: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민주 선진국이라는 이곳에 이민하고 있는 우리는 겉으로는 선택되어온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면서 내적으로는 산간벽지의 딱되어버린 일자무식같은 언행이 하루 속히 불식되어, 명실공히 차원높고, 뜻깊은 모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한인회 일자리에 새로 선임된 이들께 신의 가호가 깃들기를 바란다.

창립 8 주년기념
예배안내

본 교회 창립8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기념예배를 드리고저 하오니 부디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때 : 1982년12월11일(토) 오후6시
곳 : 본 교회(3819 Bloor St. W.)
*예배후 간단한 만찬회 있겠음.
교통안내 : 키플링 지하철종점에서 던다스 동쪽 한블럭 북쪽에 건물이 보임.
당일 본 교회안내 차량이 종점 택시승차장에서 대기합니다.
문의연락 : 621-6340

토론토 대한교회
KOREAN CHURCH OF TORONTO
교우 일동

긴겨울밤을 포근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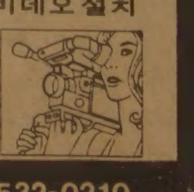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중앙고등학교
망년 파티

저물어 가는 한해를 되새기며, 아래와 같이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부동반하시어 즐거운 한때를 갖이시길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2월10일(금) 오후7시
□장 소 : 크링톤하우스 (CLINTON HOUSE) 693 BLOOR ST. W.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경품 추첨모 있읍니다.

중앙고등학교
회장 윤 택 순

교포어린이들 음악성 과시

캐나다 음악 Festival

지난 11월22일~26일 5일간에 걸쳐 서부온타리오·곤서바토리·오브·뮤직이 주최한 캐나다음악·위크 경연대회에서 런던 한인계의 많은 어린이들이 입상, 한국인의 예술성을 과시했다.

이번 입상한 교포2세는 아래와 같이 12명이 24개상을 차지했다.

◆입상자 명단

▲박수영양(9학년·박옥구씨 딸): 1등 3회, 2등 1회

▲신혜원양(9학년·신용규씨 딸): 3등

▲이표섭군(6학년·이영춘씨 아들): 1등 1회, 3등 2회

▲이메빗군(4학년·이영춘씨 아들): 1등 1회, 2등 1회

▲하철군(4학년·하광용씨 아들): 1등 2회

▲하준군(2학년·하광용씨 아들): 1등 1회, 2등 1회

▲캐롤라인 이양(1학년·이광열씨 딸): 2등 2회

▲범시 이양(PRE 1년·이광열씨 아들):1등

▲노성오군(3학년·노상열씨 아들): 1등

▲이세라양(PRE 1년·이승영씨 딸): 3등

▲박수정양(PRE 1년·박옥규씨 딸): 3등 3회

▲김헬렌양(PRE 1년·김국언씨 딸): 2등

런던 경로잔치

50여명 노인참가

런던한인회(회장 배동범)는 11월27일 런던시내 바바리안식당에서 50여명의 런던지구 노인회원을 초청, 식사와 술을 대접하였으며, 식후 춤과 노래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총영사관측에서 차성덕부영사가 참석, 각 노인들에게 전대통령 방문기념 메달을 증정하였다.

결 혼 축 하

신랑 : 최상연군

신부 : 이옥령양의 결혼식이 12월4일 정오 런던한인교회에서 신용규목사 주례로 거행된다.

이들은 식후 토론토로 직장관계로 이사한다고.

런던소식

강상권 지국장

◆강상권 런던지국장

런던지역의 교민뉴스는 강상권 런던지국장이 담당하고 있읍니다.

기사화하고 싶은 뉴스나, 공지사항이 있으신 독자께서는, 되도록 사진과 함께 강지국장에 연락바랍니다.

런던지국의 주소는 :
Mr. Sang K. Kang
506 Talbot St.
London, Ont.
(519)681-6925

선교자금 튀김판매

런던한인교회(목사 신용규) 청년회는 12월5일 오전 예배를 마친후, 12시부터 선교자금을 위한 튀김을 판매한다.

이들은 한국의 산업선교회(임명진 목사)와 서울신학대학원에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문화의밤

런던한인청소년회(회장 정갑송) 제2회 청소년 문화의 밤을 12월11일(토) 하오 7시, ALT HOUSE U.W.O에서 갖는다.

후원단체는 런던한인회, 토론토총영사관이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얼마전, 영주권자인 딸의 초청으로 서울 미 대사관에서 받은 방문 visa로 미국에 도착한 할머니 한 분이 공항에서 한국인 통역을 대동한 이민국 직원의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방문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와서 좋으면 눌러 앉겠다」고 했다. 이 말을 그 통역인이 그대로 전달, 방문으로 와서 미국에 눌러 앉을 계획을 가진 사람으로 단정한 이민국 직원은 그 할머니를 공항 hotel에서 하룻밤을 묵게 한 후 다음날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낸 사건이 있다.

서울 미대사관에서 받은 4주간의 visa기간을 미국에서의 체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잘못 안 사업가 한 분이 입국창구에서 이민국 직원에 의해 2주로 기간이 단축되어 그로인해 큰 손해를 보고 되돌아 간 경우도 있다.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미 대사관에서 했던 내용대로 행선지, 입국목적, 원하는 체재기간등을 침착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하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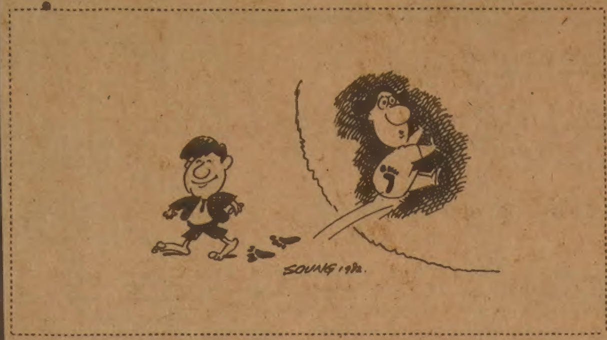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입국수속이 끝나면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기내에서 적었던 세관신고서를 접수한 후 물건을 검사대에 올려놓고 검사를 받게 된다. 어떤 방문객들은 고추장과 된장까지 가져 오는데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 가면 한국식품점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거의다 구할 수있으므로 그런 것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당장 미국땅에 도착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활영어를 익혀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인 것 같다.

A: What's your name, please?
B: Yi On-gyoung.
A: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B: I'm a student. I will be attending the summer program at UCLA.
A: How long will you be here?
B: For eight weeks.
A: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B:이 온경입니다.
A: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B:학생인데요. UCLA에서 열리는 여름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A:여기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됩니까?
B:8주일입니다.

summer program:여름학교. attend:(학교에) 출석하다.

性敎育 모두 말합시다 ⑥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처녀때의 傷處 평생을 후회한다

사는 ⋯ 몸에 상처를 입었을때 나중에 ⋯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감쪽같이 낫는 경우도 있고 흔적이 끝내 남게되는경우도 있다.

사춘기를 보내면서 가장 감정이 풍부해졌을때 친한 친구와의 정표로, 또는 자신 스스로의 약속의 표시로, 몸 어디엔가 문신(文身)을 그려 넣기도 한다.

그 당시의 기분으로는 최고여서 소중한 우정이고 약속이기에 서슴없이 이런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사춘기란 언제까지 정지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생중 가장 변화가많아서 크게 성장 발달이 되는 시기인 것이다.

성장과 더불어 굳게 맺었던 언약이, 또는 그 정표가 무의미하게 되고 나아가 큰 부담이, 또는 참피한 흔적이 될수도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변한 흔적인 문신을 없애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쉬울 수가 없다. 이 흔적이야 말로 끝내 없어지지 않은 흔적 바로 그것으로 남게 된다.

남녀의 성문제에서 혼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했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는 남자에게는 없어질 수 있는 흔적일 수 있고 여자에게는 좀처럼 없어질 수 없는 흔적이 되는 것이다.

그 흔적때문에 여자들의 운명은 크게 뒤흔들리게 되기도한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 많은 여자들에게 이런 흔적을 남기고 있다. 여구나 性문제가 선진국형이어서 실제로 남녀에게 동등한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별일이 아닐테지만 그렇지않으니 문제가 있게된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스스로 한 남자일수록 정작 본인이 결혼을 하려 할 때에는 영락없이 「처녀」를 찾게되고 좀처럼 여자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어느 20대 청년은 자기는 자신의 아내될 여자가 굳이 처녀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어느 여자를 알고 지내며 성관계를 갖고 있고 장차는 결혼을 할 예정이나 이여자가 아무래도 처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니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도 무언가 아쉽고 서운한 느낌이 있으니 웬지 알 수가 없다고 호소를 하고 있다.

물론 이 청년이 정말로 왜인지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신이 내내 처녀가 아니라도 무방하다고 주장해 왔던 그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을 정도로 진심은 딴곳에 있었지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무엇인가 자신의마음가짐이 변할 수 있는 명분(名分)이 필요했던것 뿐이다. 결국 이 청년도 역시 아내감으로는 처녀를 필요로 했던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원하고 싶어진다. 제발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사람을 감싸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져 달라」고, 설혹 경우에 따라 여자가 그렇게 하기를 허용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타일러 줄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남자들의 하찮은, 순간적인 행동은 여자들에게는 평생 없앨수 없는 문신처럼 남겨지게되기때문이니 말이다.

金 貞 泰
<襌博·한국人口문제연구원>

今週의 팝세계

비틀즈기념銅像 건립

○…비틀즈의 대형 동상이 건립된다. 이 동상은 비틀즈가 첫 그룹활동을 개시했던 리버풀시의 유명한 캐번클럽자리에 세워질 예정인데 조각가 존·타볼티가 제작의뢰를 받고 이미 작업에 착수했다.

리버풀시에서는 시의 관광명물로 삼기위해 그동안 여러차례 기념동상건립이 논의되어 왔고 일반팬들의 성금모금 캠페인도 벌여왔으나 겨우 5천달러의 모금에 그쳐 동상건립계획이 지연되어왔었는데 최근 영국의 로열생명보험회사가 7만달러를 보내옴으로써 건립계획이 구체화된것. 84년 4월에 제막될 예정이다.

○…영화배우 클린트·이스트우드는 그의 새로운 감독, 주연 작품인 「홍키 통크 맨」에서 컨트리 싱거역으로 출연하는데 대역가수를 쓰지않고 자신이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까지 부를 예정이라고.

컨트리 뮤직의 본고장인 테네시주 내슈빌시를 무대로 「그랜드·올·오프리」무대에 도전하는 한 무명 컨트리 싱거의 이야기를 다룰 「홍키 통크 맨」은 영화 내용상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가수만이 해낼수 있는 역인데 노래에 대역을 쓰지않겠다는 이스트우드의 의욕은 놀랄만한 결정이다.

이 작품에는 그의 아들 카일(14)도 함께 공연한다.

▲샤이더는 좇기는듯한 스트립에 빨려 들며 범인을 찾는다.

새 映画

밤의 적막 〈Still of the Night〉

어느날 患者가 무참히 살해당하면서…

가끔 관객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 드릴러인줄 착각하고 만든 영화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수작을 만든 감독 로버트·벤튼의 실패작이며 중량급 배우 메릴·스트립과 로이·샤이더가 소비돼 허망하기 짝이 없다.

기대가 깨어지는 실망 외에도 감독 벤튼은 드릴러를 시도하면서「Spellbound」(망각의 여로), 「North by Northwest」(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등 힛치콕의 많은 장면과 심지어 클린트·이스트우드가 나온 「Play Misty for Me」(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의 수법까지 도용, 표절의 대가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뉴욕 맨하탄, 정신과의사 로이·샤이더의 환자 조셉·섬머가 무참히 살해당하면서 이야기는 시작 된다. 섬머의 정부 메릴·스트립이 어느날 홀연 샤이더 앞에 나타나 알쏭달쏭한 소리를 늘어 놓으며 영화는 스트립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나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뻔한 일. 아쉬운 스크립이 허술한데다 벤튼이 드릴러를 엮어가는 기교가 부족해 일어난 큰 실수다.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는 이상 이미 이 영화는 긴장감을 상실케 되고 또 그렇다고 이 영화가 로맨틱한 것도 못돼 공연히 멋만 부리다 만 셈이다.

배우들이 야밤에 뉴욕의 센트럴 팍을 겁없이 돌어가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있다.

물론 샤이더는 스트립의 신비한 아름다움에 빠져 범인을 추적하고 마지막 순간 주인공은 살아 남고 「다른 사람」은 지옥으로 라는 식의 상투적인 해피 엔딩.

배우가 훌륭해서 찾아간 이 「실망작」에서 탁월한 것은 보름달을 빌려 찍은 현란한 촬영.

언제봐도 비밀을 잔뜩 안은 우수의 여인으로 남자의 연민의 정을 자아내고 그 차가운 미가 전율스러운 메릴·스트립의 모습만이 간신히 위로를 주는 정도다. 등급PG, MGM/UA작.

나탈리 死亡으로 촬영중단 「브레인 스톰」내년에 개봉

○…나탈리·우드의 사망으로 촬영의 계속여부가 논란되었던 MGM/UA 영화 「브레인 스톰(Brainstorm)」이 결국 완성케 된다.

「브레인스톰」의 감독 더글라스·트럼블은 이 영화의 주요촬영을 모두 마쳤으며, 앞으로 5개월내에 포스트·프로덕션 과정도 끝낼 것이라고.

크리스토퍼·월큰, 나탈리·우드, 클리프·로벗슨등이 출연하는 이 영화는 83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生前의 나탈리·우드「妖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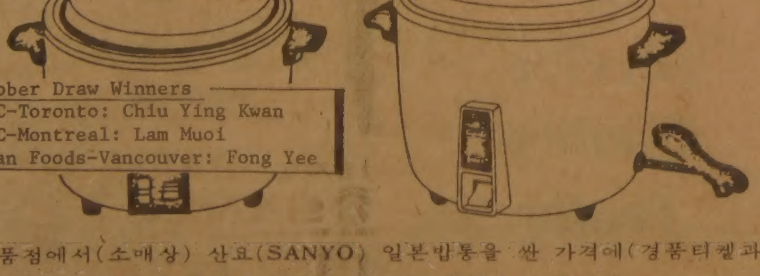
이화여고
크리스마스및
망년파티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에도 크리스마스및 망년파티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 하시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2월11일(토) 오후6시
장 소 : Triumph Sheraton (HWY401×Keele) 빅토리 Room)
회 비 : 부부45불
연락처 : Mrs.김 1-895-7594
Mrs.진 533-0190

이화여고동창회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SANYO 자동·보온밥통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켓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켓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제6회

신춘문예 현상모집

이민생활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날이 짙어짐은 모국어에의 애착과 그 전통문화및 예술에의 향수입니다.

이에 이민사회에 한국문화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코자 숨은 문재의 발굴을 꾀하여 여섯번째 현상문예모집을 실시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30~60매
시(시조포함) : 편수 제한없음.
수 필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평 론 : 테마자유·200자 원고지 40매 이내
희 곡 : 200자 원고지 60~120매
아동문학 : 동화(200자 30매 이내)
동시(동요·동화시 포함)편수제한 없음
마 감 : 1982년 12월15일
제 출 처 : 캐나다한국문인협회
Korean Canadian PEN Club
5 Massey Square #2008
Toronto, Ont. M4C 5L6
발 표 : 1983년 1월1일
시 상 : 각부문 당선작 1, 가작 1.
심 사 : 문인협회 심사위원회
※응모작품에는 각편마다 반드시 이름(본명)·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적을 것.(필명이나 가명은 무효)

주최 : 캐나다한국문인협회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신규)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 이사선임위원회 —

신임이사 22명 선출

기타업종회원에 10명 할애

11월29일 하오7시 협회사무실에서는 앞으로 2년간 수고할 이사22명을 선출하는 이사선임위원회(위원장 서준경)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사선임위원회는 지난 10월22일의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박경택, 서동준, 서준경, 최복기의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총회 이후 Convenience Store위주로 운영해 오던 협회의 문을 활짝 열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한인이 경영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영입하여, 이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발전적인 협회 운영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사선임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인선을 실시하기로 합의, 그 적임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신임이사 명단은 개별적으로 이사직수락을 확인한 후 내주에 공포하기로 결정하였거니와, 선임된 이사의 분포는 Convenience Store경영회원에서 10명, 여타업종 회원에서 10명을 선출하였고, 해밀톤지구 회장과 Durham(Oshawa)지구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추대하여 협회와의 사업유대를 긴밀히 하기로 하였다 한다.

기존한인도매업체와 회합

— 협동조합추진위원회 —

내년 6월1일을 개업목표로 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작업에 착수한 협회는 제1단계로 기존 한인도매업체인 신의상사와 연합상사의 대표자들과 12월2일 회합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합은 협회가 협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게될 기존 한인도매업체와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협회측에서 요청한 것이다.

협동조합추진 관계자들은 이날의 모임이 좋은 결실을 가져올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양측 도매업자들과 원만한 타협만 이루어진다면 협동조합의 설립은 예정일인 6월1일보다 한층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연말대목을 살리려면

E. P. Tesar
Director
Retail Services Institute

이 글은 Canadian Distributor & Retailor의 12월호에 실린 것을 회원에게 참고가 될 듯하여 번역 전재한 것임(상담실 번역)

크리스마스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 대목은 백화점, 구멍가게 할것없이 어디에나 찾아온다.

크기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상점이 상품을 추가로 장만하게 되고, 그만큼 더 팔릴 것을 기대하게 된다. 「버라이어티」가게에서 가장 매상이 오르는 날은 크리스마스 전날이다. 사무실선물등 모든 선물이 요마지막 시간에 팔리므로 평상시 2~3일 걸려서 팔 상품을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한다.

이에 대비해서 준비가 얼마나 갖추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평상시의 재고에 무엇인가 추가로 들여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선물, 크리스마스 카드, 포장지, 장신구등 수천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무엇인가 더 사놓았을 것이다.

이럴 때에 이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그 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손님에게 왜 이것을 사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만든 상품인지 아는가? 어디서 제작된 것인지 알고 있는가? 보증이 되는 상품인가?

이 물건을 사들인 당신이나 「매니저」는 다 안다고 하자. 부인이나 헬퍼도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이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는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알고 있는지 재확인하고,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기술을 연습시켰는가?

이해가 저물면 실패하는 사업체가 줄잡아서 1만개 정도는 될 것으로 보며, 더구나 겁나는 것은 그중에서 근 3천개 정도는 소매업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얼마든지 있다. 나쁜 위치, 늘어나는 경비, 비싼 이자, 빈곤한 상품진열, 팔리지 않은 상품등. 팔리지 않은 것은 손님 탓이 아니라 팔지 못한 당신과 헬퍼 탓이다.

촉박하기는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 상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라. 먼저 이 물건을 당초에 왜 사들였는지 생각해 보고, 어떻게 팔 것인가를 부인과 상의해 보라. 좋은 생각이 안 떠오르면 도움을 청하라. 그 물건을 판 사람에게,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의논할만한 사람에게, 기어이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따라서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 겨울 신사구두를 사려고 이름있는 구두가게에 들렀을때 「수퍼바이저」 같은 사람하고 이러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

○수퍼바이저: "멋진 구두지요?"

●필자: "네."

가격표가 없기에 "얼마죠?"

○수퍼바이저: "아마 $130 내지 $150정도 될 겁니다." 하고는 작업화를 꺼내더니 이것은 더 싼 거라고 했다.

이 「수퍼바이저」가 나한테 물건을 팔 수 있었겠는지는 상상에 맡긴다. 이걸 위해 이 회사에서는 sq. ft. 당 1년에 $25내지 $30의 임대료를 물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명심할 점은 마지막 대목은 금요일(12월24일)이고, 이날은 하루가 아니라 3일분을 팔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다. 밀크, 팝, 담배등 이때가 바로 매상을 올릴 때이다. 고급과자, 고급담배, 특종 파이프 엽초등 사치품은 더구나 팔 수 있는 기술을 모르면 못팔고 만다.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배우는데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제발 "대강 해두지"라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7-UP 1.5리터 88¢

—12월2일부터 4주간—

◆마크·베나디바

지난 29일 7-Up회사의 Sales Manager Mark Benadiba씨는 인사차 협회로 차선경회장을 찾아와서 월슨회사의 「Crush」상품을 인수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동시에 내년도에는 더욱 긴밀한 유대하에 실협회원을 위한 적극적 Promotion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지난 7월의 스페셜에서는 최소한 20c/s를 주문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회원의 참여도가 80%밖에 안되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한편 크리스마스를 기하여 12월2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7-Up 1.5리터를 88센트로 스페셜을 실시한다고 전하였다. 마진은 24.2%이고, 기타 주문량등에 대한 부대조건은 없다.

유 서(11)

부양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Ralph M. Levine 강공선 역

누구나 자기 재산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을 도외시했을 때에는 그 부양가족이 법원에 신청하여 유언집행자로 하여금 부양가족에 대한 유산상속을 집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최근의 법을 보면 부양가족에 대한 정의를 대폭확대 개정하였고, 또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

▲신법에 규정된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

(1)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Common-Law Spouse)

(2)사망자의 부모

(3)사망자의 자녀

(4)사망시까지 실제로 부양하고 있었거나, 또는 부양할 법적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형제자매.

배우자에 대한 정의도 그 범위가 확대되어, 사망자와의 혼인이 종료되었거나, 이것이 법률상으로 선고된 배우자까지도 포함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전처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에 따른 결과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혼수속에서는 대개 재정적인 보조에 관한 법원의 명령서가 따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은 이 명령서에 별거합의서를 포함시키고, 그 내용에는 남편은 처에게 일생동안, 혹은 재혼시까지 일정한 액수의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유서상에 전처에게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유산중에서 부양비를 지불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Common-Law Spouse에 대한 신법의 정의는 결혼하지 않고, 1) 사망시까지 5년이상 계속 동거한 남자, 또는 여자, 그리고 2) 자녀가 탄생하여 영속적 관계에 있는 남자, 또는 여자라고 규정하였다.

아동에 대한 정의도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생계를 조달할 수 없는 신체장애자가 아닌 16세 이상의 아동은 부양가족으로 간주하지 않았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장애자란 질병이나 불구를 말한다. 근래에는 풀타임으로 학교에 나가는 대학생도 생계를 조달할 수 없다하여 부양가족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자식"의 정의에서 16세미만이란 것은 없어졌고, 사망자가 죽기 전까지 부양하고 있었거나, 또는 부양할 법적의무를 지고 있었으면 자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식의 정의에는 합법적인 양자가 포함됨은 물론이고, 현재는 더욱 확대되어

1. 손자
2. 사생아(Illegitimate Children)
3.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에 의해 정식으로 입양되지 않았더라도 사망자가 실제로 자기 가족의 한 자식으로 대해온 아동(Children in Loco Parentis)까지 포함하고 있다.

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나중에 법원을 통해서 청구해 오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부양가족을 포함시키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K.B.A. 교환센터

◉10Feet Open Cooler(선반 3줄 Good Condition)을 가지고 있음.
2Door Pop Cooler와 교환하기를 원함.
(766-8849 문남귀)

◉4Feet card Rack 구함.
(481-2311 양정우)

◉4Feet Card Rack 8개 있음.
(845-5445 박만기)

◉4Feet 길이의 베커에서 쓰는 Shelf 구함
(421-6880 Mini Mart)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서부지점 ☎: 243-9544
해밀톤지점 ☎: 1-385-1485

적은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Rosen
DAIRY PRODUCTS LTD.
"YOUR EXCELLENT SERVICE"
is our
"NUMBER 1. CONCERN"
FEATURING
"Silverwood" AND
MANY OTHER QUALITY PRODUCTS
CALL 278-MILK
AND "WATCH YOUR SALES GROW!"

YORK
ICE CREAM
FOR:
Service
Quality
Profit
PHONE: JOHN CANE
(SUPERVISER)
766-4311 Ext. 541

실협가입
특별세일
본 가나안 카텐사에서는 금번 실협회원에 가입함을 기념하여 회원 전원에게 아래와 같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유원덕 드림
Vertical Blind 30% OFF
Mini Blind 30% OFF
Drapery(카텐) 30% OFF
★세일기간—12월30일까지
CANAAN DRAPERY
2338 Lakeshore Blvd. W.
☎: 252-4857

Welcome to K.B.A.

— 금주의 신입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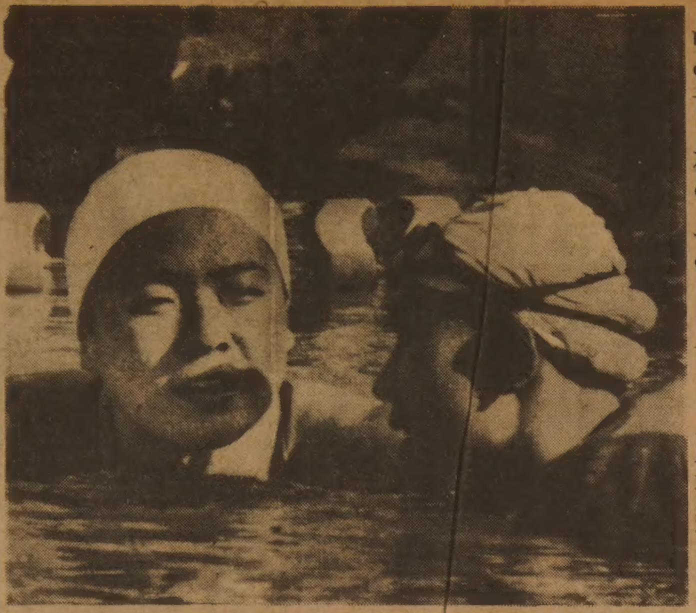
Amarl Fruit & Flower Shop	김진태·이동승
Etobicoke Smoke Shop	곽형숙
Frank's Smoke & Gift	김숙열
Don Mill Variety	이영만
Joe's Supermarket	홍성술
J & J Convenience	이영희
Song's Variety	배근옥
Royal Variety	김신철
Crescent Town Ice Cream Parlor & Bakery	김신기
Stop & Shop	강경하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崔允喜 또 金 2…3冠王

아시안게임 陸上서 첫金…金鍾鉛 넓이뛰기 우승



배영百·개인혼영 2백m 亞洲新 允喜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 아시아 여자수영에 崔允喜·允庭자매시대가 활짝 열렸다. 崔允喜(15·서울사대여부중)는 27일 열린 제9회 아시안게임여자수영배영1백m 결승서 1분06초39로금메달, 이어 열린 개인혼영2백m서 2분24초32의 아시안게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함으로써 한국선수로서는 최초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崔允喜는 지난23일 여자배영2백m서 2분21초96의 기록으로 첫금메달을 차지했었다.

崔의 언니 允庭(16·상명여고)도 이날 동생과 함께 배영1백m와 개인혼영 2백m에 출전, 일본선수를 제치고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자매가 수영3종목서 金銀메달을 차지한것은 아시안게임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한국선수단은 이날 崔允喜 金鍾鉛의 수훈으로 귀중한금메달3개를추가, 금메달10개로印度를제치고3위에나섰다.

◇수영기록

▲여자배영1백m결승=①최윤희(한국) 1분06초39 ②최윤정(한국) 1분06초98 ③마에다(일본) 1분08초24

▲여자개인 혼영2백m=①최윤희 2분24초32 ②최윤정 2분25초45 ③히데까·고시미즈(일본)2분25초45 (이상 대회신·종전 2분26초29)

이날 金鍾鉛은 육상남자넓이뛰기에서 7m94로 육상서첫금메달을 차지했다.

◇물개姉妹의 대기염 아시안게임 여자수영서 2개의 금·은메달을 차지, 신데렐라로등장한 金銀자매 崔允喜(左)와 允庭。 배영2백m서 1, 2위를 차지했을때의 모습이다。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

인구抑制策 강력推進

3子女이상 고소득자 住民稅重課 검토

정부는 공무원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子女로 제한실시되고 民法개정으로 혼인연령이 늦춰질것으로 보이는 83년부터 인구증가억제책을 어느때보다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5차경제 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목표연도인 86년까지 우리나라인구를 4천1백만명으로 억제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모든 정책수행에 인구억제정책을 반영시키는한편 인구정책심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키로했다.

27일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가 시행키로한 인구억제시책에는 ▲民法의 개정이 가능한경우 현재 男18, 女16세로돼있는 혼인연령을 男女모두 20세로 늦추고 ▲여자와 동등한 相續과 戶主제도도입에 따르는 男兒選好인식의 拂式 및 ▲각급학교교육과정에 인구·가족계획교육을 강화하며 ▲가족계획사업을 전면 개편하는것등이 포함돼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의료보험에 의한 分娩의 경우 3자녀이상에 차등을 두어 3자녀이상 출산때는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케하는 한편 의료보호대상자선정때 2자녀 이하의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영세민不姙시술자에 대한 특별생계비지급을 검토하는등 제도적인 인구증가억제책을 다듬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인구증가억제외에도 부유층등 사회지도층의 인구증가억제가 더욱 시급하다는 판단에따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高所得者가 3자녀이상을 가지는경우 주민세를 重課하는방안도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이같이 강력히시행키로한것은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식량난이나 주택난, 교통난, 교육재정부담의 증가등을 가져와 경제개발의 성과를 흩뜨리고 개발의 노력을 헛되이게 하기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韓中미술 招待展 全대통령, 둘러봐

全斗煥대통령은 27일 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새마을지도자 子女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서울江西區오村洞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전시관에서 열리고있는 韓中미술 초대전과 土産品바자를 약40분간 둘러봤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날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관계자로부터 새마을역사관건립및 韓中미술전에 관한 보고를 받고 金鐘中앙본부장과 자유중국의 任宜伯中華예술공사 회장등의 안내로 본부건물 1층에 마련된 토산품전시장과 지하전시관에서 열리고있는 韓中미술초대전을 차례로 돌아봤다.

李外務·워커美大使 요담

李範錫외무장관은 27일 리처드·워커駐韓美대사의 예방을받고 약30분간 요담했다.

이자리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레바논문제를 포함한 韓美간 공동관심사가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요담에는 외무부의 孔魯明차관보와 李美주국장이 배석했다.

3黨회담 사실상 깨져

豫算案삭감·政治議案등 진통

국회는 27일에이어 일요일인 28일에도 豫決委예산안조정小委를열고 새해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計數조정작업을벌이는한편 民正·民韓·국민등 3黨은 총무회담이나 3黨3役들이 참석하는 重鎭회의를갖고 예산안歲出삭감규모와野黨측이주장하는 政治議案, 그리고 자원관리법안의 처리문제등을 논의할예정이나 3黨3役회담은 사실상 무산된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부터 12월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열고 그동안 常任委를통과한 40여건의 법률안과 동의안을처리한후 12월2일 예산안을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3일부터 13개상위를 일제히열고 계류중인 70여건의 법안과 80여건의請願심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예산통과후 마지막 常委활동에서 野黨이 제출한 政治議案과 野黨이 철회를주장하고있는 資源관리법안은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있으나 與野간의 절충이안될경우 정치의안이나 자원관리법안은 會期내 처리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각黨은 國債발행감축규모와 81년도 GNP확정치 발표에따른 국방비삭감폭에 견해를 달리하고있어 豫決委 예산안조정小委 활동시한은 오는29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民正黨은 야당의 삭감요구액을 최대한받아들여 歲出에서 1천억원線을 삭감, 당초 5천5백억원을 발행키로되었던 國債발행규모를 3천5백억원선으로 줄이기로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民韓黨은 5백38억원의 국방비삭감등 모두 1천5백42억원이상을, 국민당은 1천30억원의 삭감을 요구하고있다.

防衛費삭감여부 오늘決定 豫決委

국회豫決委예산안조정11人小委(위원장 崔洛喆의원)는 27일하오 金埈成부총리와 尹誠敏국방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방위비推計差額삭감문제에대한 정부측의 의견을 들었다.

예결위는 이날 국방부측이 방위비삭감에 반대의견을 보임에따라 28일중 정부측의견을 다시듣고 결정키로했다.

이날 金埈成부총리는 『방위비는 北傀의 軍事力등을고려해야하는 특수예산이기는 하지만 국회의 삭감의견을존중해 좀더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尹국방장관은 『내년도 국방부예산자체가 超긴축으로 편성됐으며 만일 방위비를 삭감할경우 戰力증강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우려가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방위비가 적정규모를 넘었을경우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게되며 결과적으로 방위비확보에 차질을 빚게된다』고 지적하면서 『방위비부담은 韓美간에 약속은 지키더라도 약속액이상의 過多책정분은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까소네 새內閣 外務部 환영表明

외무부는 27일 일본의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內閣출범에대해환영을표시하고 일본의 새內閣과협력을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무부당국자는 이날 논평을통해 『나까소네총리의 취임과 새내각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특히 나까소네수상이 취임초기자회견에서 앞으로 韓日간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양국관계증진의 뜻을 표명한것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로서는 韓日양국간의 선린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위해 일본의 새내각과 협력을 가일층강화해 나가고자한다』고 말했다.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한독피아노제조 白雲光사장 外 1백24만원

서울道峰區藥師會 徐明漢회장 外 1백만원

在日居留民團 山形縣지방本部 1백만원

장로회禾谷洞교회 50만원

(株)韓國教育出版 50만원

▲한독피아노제조(株) 白雲光사장외 임직원一同=1백24만원 ▲서울시道峰區藥師會(회장徐明漢) 회원一同=1백만원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 山形縣地方本部 (團長 金汝大, 議長 金炳洙, 監察委員長 尹炳郞)=1백만원 ▲大韓예수교장로회 禾谷洞교회 (목사 金學晩) 교우一同=50만원 ▲(株)韓國教育出版임직원一同=50만원

<27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경기도강화군교동면 교동우체국 장양구국장외 교환원및 직원一同=20만원 【교동지국접수】 ▲새한콘텍트렌즈 대표 정병환씨외 임직원一同=20만원 ▲三元電子工業(株) 대표이사 김종헌씨외 임직원一同=20만3천5백원 ▲在美뉴욕韓國佛教傳燈寺住持 李月珠씨=16만원 ▲韓國低價者協會서울支部회원一同=10만4천5백원 ▲서울강동구우정아파트6동801호 송윤수양, 송창선, 송영선, 송영림군 4남매=10만원 【소년한국접수】 ▲서울강동구 미성음악·미술학원원아一同=7만2천원 【〃】 ▲江南區方背洞27통 임양인씨외 주민一同=6만1천5백원 【方背보급소접수】 ▲육군제8317부대2대대본부중대 대위박수옥씨외 동원예비군一同=2만원

◇日 새內閣 名單 新=신임

		이름	나이	파벌
首相	新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64	나까소네
法務	〃	하다노·아끼라(秦野章)	70	무파벌
外務	〃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郎)	58	후꾸다
大藏	〃	다께시따·노보루(竹下登)	58	다나까
文部	〃	세또야마·미쓰오(瀬戸山三男)	76	후꾸다
厚生	〃	하야시·요시로(林義郎)	55	다나까
農林水産	〃	가네꼬·이와조(金子岩三)	75	스즈끼
通産	〃	야마나까사다노리(山中貞則)	61	나까소네
運輸	〃	하세가와·다까시(長谷川峻)	70	나까가와
郵政	〃	히가끼·도꾸다로(檜垣德太郎)	65	나까소네
勞動	〃	오오노·아끼라(大野明)	54	무파벌
建設	〃	우쓰미·히데오(内海英男)	60	다나까
自治	〃	야마모또·사찌오(山本幸雄)	71	다나까
官房	〃	고또오다·마사하루(後藤田正晴)	68	다나까
總務	〃	니와·효스께(丹羽兵助)	71	고오모또
行政管理	〃	사이또·구니끼찌(齋藤邦吉)	73	스즈끼
防衛	〃	다니가와·가즈호(谷川和穗)	52	고오모또
經濟企劃	〃	시오사끼·준(塩崎潤)	65	스즈끼
科技	〃	야스다·다까아끼(安田隆明)	66	스즈끼
環境	〃	가지끼·마다조(梶木又三)	63	다나까
國土	〃	가또·무쓰끼(加藤六月)	56	후꾸다

左右翼민병 또戰鬪 레바논 中部산악서

【베이루트AP=聯】 우익기독교민병대와 좌익 드루즈派 민병대세력간에 26일 다시 레바논중부산악지대 알레이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며 이 [illegible] 모든 도로를 차단시켰다고 레바논국영방송이 보도했다.

日外相에 아베

【東京=宋孝彬특파원】 신임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수상은 27일밤 다나까派를 무더기로 맞아들인 가운데 새내각을 출범시켰다.

이날 衆·參의원본회의에서 새수상으로 지명되자 곧 組閣에 착수한 나까소네수상은 外相에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郎)를, 藏相에 다께시따·노보루(竹下登)를, 관방장관에도 역시 다나까派인 고또다·마사하루(後藤田正晴)를, 通産相에 자파소속 야마나까·사다노리(山中貞則)를 임명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이에앞서 당3役으로 니까이도(二階堂進)간사장과 다나까·로꾸스께(田中六助)政調회장을 유임시키고 호소다·기찌조(細田吉藏)를 총무회장에 임명한다음 이들과 함께 즉시 내각구성에 들어갔다.

나까소네 1월訪美

【東京UPI=聯】 나까소네 신임 일본수상은 美日간의 방위협력및무역마찰문제에관해 협의하기위해 내년1월 워싱턴을 방문할것이라고 26일 외무성의 한고위관리가 말했다.

이관리는 나까소네수상이 訪美하게되면 레이건대통령을 비롯한 미관리들과 가질 회담의 의제는 美日간의 쌍무문제에 국한되지않고 국제정세전반에관한 검토도 있게 될것이라고 밝히고 정확한訪美日字는 곧 정식외교경로를통해 협의될것이라고 말했다.

社会漫評

배우기로…

地平線

불은 사람에게 축복이며 동시에 재앙이다. 불은 인류문명의 起源이어서 그 起源은 신화에서 피어났다. 神이나 동물, 또는 신으로부터 전해 받았거나 發火法을 배워 훔쳐낸다는 신비스런 이야기는 흔하다. 그리스神話의 영웅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神이 독차지한 불을 훔쳐내서 인간에게 주었다. 신화의영웅 프로메테우스는 영원히 제우스의 저주를 받았다. 희랍신화를 창조한 그리스는 학문의 발상지라는 긍지를 남겼다. ▼자연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 만물의 根源이란 假說을 내놓았다. 실증적인 학문의 발전은 불을 사용한 기록을 50만년전으로 추정했다. 北京原人이 처음썼다는 흔적이 발견되고 나서 부터다. 이것이 通說로 굳혀졌지만 과학자들의 욕심은 여기서 주저앉을수 없었다. 영국과학 주간지는 美·英·加 3개국합동조사반이 아프리카 케냐에있는 바링고湖 부근에서 불을사용한 흔적을 찾아내고 [illegible] 1백40만년전으로 까마득히 거슬러 올라간 것이었다. ▼불의혜택을 누린 인간은 불의 위협과 싸워야할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지금은 소방서라고불리지만, 조선조때엔 禁火都監이란 소방기구가 있었다. 소방보단 禁火란 말이 불의 공포를 훨씬 무섭게 표현하고 있다. 조선조는 개국하면서 한양을 건설한후 방화장을 쌓고 곳곳엔 우물을 팠다. 防火기재도 갖추고 크게 조심을 했던것 같다. 이런일을 총괄하는 기구가 바로 禁火都監이었다. 水災가 天災라면 火災는 人災란 인식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수 있다. ▼太祖가 창건하고 王政의 무리가 내린 경복궁은 明宗 8년(1553년) 가을에 火災를 겪었다. 康寧殿에서 발화, 思政殿과 欽敬閣을 태워버렸다. 당시 우의정의 보고에따르면 火因은 온돌을 수리하다 부주의로 인한 失火인것으로 알려졌다. 失火者를 찾아 문책해야 한다는 여론이 꽤 높았다. 中宗때엔 의정부 문서를 보관한 稷庫가 失火로 소실되어 三政丞이 사의를 표명한 일까지 일어났다. ▼불의 禍는 놀랍다. 작년 한해 전국에서 5천6백여건이 생겼다. 2백여명이 죽고 6백60여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도 1백22억원을 넘었다. 대개가 부주의 탓이었다. 전기·기름·담뱃불로 인한것이었다. 「겨울의 治火」를 곰곰 생각해 볼때가 또 왔다. 治火는 부주의를 꺾는 일이다. 온돌이나 난방기구에서 불조심의 눈길을 떼지말기를 바란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333-28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지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한국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6년간 정통 중화요리를 자랑스럽게
봉사 해 왔읍니다.

WE SERVE
KOREANS FOR
OVER 26 YEARS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석이 준비 되어 있읍니다.

영업시간 : 11 : 30am. 2 : 30 a.m.

SAI WOO

ALOHA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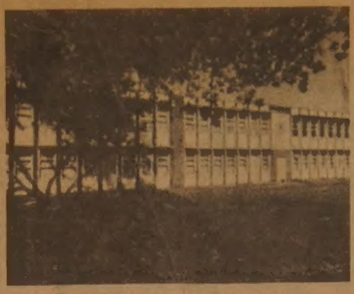
영업시간 : 11 : 30a.m. 11 : 30p.m.

SAI WOO RESTAURANT & TAVERN 130 DUNDAS ST.W. TOR ☎ : 977-4988

ALOHA RESTAURANT & TAVERN 123A DUNDAS ST.W. TOR ☎ : 977-3438

캐나다僑胞 예비大學 설립

터론토의 金徹씨… 聖앨버트大 인가받아 내년開校



◇한국인이 세운 聖앨버트예비대학。

在캐나다 한국교포가 캐나다교포사상 처음으로 예비대학설립인가를 받았다. 터론토 [illegible] 관으로있는 金徹씨 (40) 는 캐나다文敎省으로부터 聖앨버트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83학년도부터 문을 열게되는데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이민또는 학부유학때 영어들을 못해 어려움을겪는일을 크게 덜어주게 됐다.

캐나다는 非영어사용권유학생들을 위한 1년제 예비대학 (Collegiate)제도가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후 캐나다, 미국, 유럽등의 대학에 유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집중적인 영어교육과 대학희망학과의 진학을 위한 예비강의를하기위한것.

정부가 허가한 이 예비대학을 졸업하면 캐나다, 미국 또는 유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것과 동등한 자격을인정하여 예비대학의성적과 본국고등학교성적을 토대로 대학에 무시험으로 진학할수있다는것.

캐나다 全國에는 현재 이같은 예비대학이 15개 정도 있으나 한국인이 설립했거나 한국어가 따로 통하는 학교는 없었다.

『저도 유럽에서 유학을했지만 歐美에서 한국학생들은 모두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집중적인 언어훈련이 돼있지못해 유학 1·2년안에 상당수가 탈락하거나 밑바닥을 헤매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왔읍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金徹씨는 聖앨버트 예비대학 (Saint Albert Collegiate)이 유학생활 초년에 얻기 쉬운 한국인들의 우울증을 해소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1년제… 留學生영어 교육치중

美·加·유럽高校 졸업생과 同等자격

◇金 徹씨

정기코스에는농업학, 건축학, 文科, 경제학, 컴퓨터학, 기계공학, 山林學, 간호학, 기초醫學, 자연과학등의 대학예비교육을 실시한다.

캐나다는 미국, 유럽과 교육협정을맺고있어 캐나다의 예비대학을 졸업하면 미국과 유럽대학에 곧장 진학된다. 다만 名門대학진학은 고등학교 3학년 전과정의 성적과 예비대학 성적의 평균치에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해야한다.

현재 한국은 고등학교졸업자가 해외유학을 할 경우 고교성적이 전체의 20%이내이어야한다는 단서를 붙이고있다.

한국에서 유학할 경우, 우선 聖앨버트예비대학에 편지를 내 입학원서를 얻은후 소정원서와 원서대금 30달러, 영어시험인 TOEFL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실력증명서를 붙여 제출하면 4내지 8주이내에 입학가부가 결정돼 통지된다. 원서교부등 문의사항을 위한 聖앨버트예비대학 주소는 St. Albert Collegiate, 85 Forty First Street, Etobicoke Ontario, Canada M8W 3P1 (전화 Canada(416)-251-0716)

聖앨버트校의 정원은 12개반규모. 한반이 25명 정원이니까 총3백명. 그러나 첫해는 5클라스 정도만 운영할 예정이다.

金徹씨는 聖앨버트校가 한국인만을위한 학교는 아니지만 한국인 또는 東洋을 공부하려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기를 바랐다.

내년에 있을 학기의 교과내용을보면 우선 6·7·8월 3개월동안 영어집중 교육이 있고 정식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의 [illegible]

【터론토=金明秀지사장】

26일 出帆한 나까소네 새內閣의 性格

船長만 바뀐「다나까號」

閣僚21명중 官房相등 6명

후꾸다·고오모또등 非主流반발로 混迷예상

◇나까소네 (中曾根) 新任日本首相이 26일밤 組閣을 마친후 집으로 가기위해 수상관저를 떠나고있다。 【東京27日AP 聯合】

26일밤 난산을 거듭한 끝에발족한 나까소네(中曾根康弘) 내각은「스즈끼(鈴木)내각」보다 한층더 다나까派에 가까운 내각으로 평가되고 있다.

黨內제일파벌인 다나까軍團과 스즈끼派의 지원을 얻어 수상의 權座에 오른 나까소네로서는 다나까派와 스즈끼派에대해 論功行賞格의 내각인사를 하지않을수 없는 형편이었다.

나까소네내각의 특징은 다나까派를 主流에 기울어진외에 내년에 선고될 록히드사건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총선에 대비한 내각으로 분석된다.

내각인선중 가장 문제가 된것은 수상의 비서실장격인 관방장관의 인선이었다.

나까소네 수상은 自派인 우노·소기께(宇野宗佑)를 관방장관에 기용하려 했으나 다나까가고또오다·마사하루(後藤田正晴)前자치상을 강력히 밀고나와 나까소네수상은 다나까의 주장을 받아들여야만했다.

자민당창당 27년동안에 관방장관이 自派인사로 메워지지 않은것은 한두번에 불과했다.

다나까 前수상이 자신의 측근중 측근인 고또오다를 나까소네수상관저에 심어놓은것은 그가내년에 선고될 록히드재판과 관련한 布石으로해석된다.

예상을 뒤엎은 관방장관 인선에대해 나까소네派 자체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일고있으며 후꾸다派등 비주류도『나까소네 내각은 다나까내각』이라고 비판하고나섰다.

[illegible] 로 기용된데 대해 내년7월에 있을 참의원선거를겨냥하여 衆議院을 해산하고 [illegible] 는 견해도 있다. 지난 19일 나까소네수상을 지원하는 파티에서 다나까는『여기에 있는 나까소네君은 2~3일뒤면 수상이될 사람이다. 衆·參의원 동시선거가 실시되면, 86년까지 3년동안 수상자리에 올라 현안문제를 모두 해결하게될것이다』고 말해 내년7월 국회를 해산하고衆·參의원 동시선거가 실시될것임을시사했다.

다나까의 동시선거 실시시사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나까소네수상으로 하여금 국회를 해산하도록 종용한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게 나돌고있어 나까소네수상의 다나까추종은 움직일수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나까소네 내각의 파벌안배를 보면 다나까派가 관방장관, 대장상, 후생상, 건설상, 자치상, 환경청장관등 6개각료를 겸해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다음은 스즈끼派로 행정청장관, 과기청장관, 경제기획청장관, 농상등 4개각료 자리를 차지했다.

후꾸다派는 외상, 문부상, 국토청장관등3개를, 나까소네派는 수상과 통산상, 우정상등 3개를 각각 차지했다.

고오모또 (河本) 派는방위청장관, 총무장관을, 나까가와(中川) 派는 운수상을 맡았다.

무파벌의 중간파인 법상과 노동청장관중 법상은 다나까에 가까운인물로 사실상 나다까파는 7개장관을 독차지한셈이 됐다.

특히 다나까측근인 하다노·아끼라 (秦野章)를 법상으로 기용한것은 내년2월에 논고예정인 록히드재판피고인 다나까를 비호하려는 처사라고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적인반발을 보였다.

總評을 비롯한 사회당은 [illegible] 수상의 출신지인 니이가따(新潟)와 東京에서 대대적데모를 벌여 록히드사건을 정치문제화 하겠다고벼르고 있다.

자민당내 파벌간의 力學로봐 나까소네 수상은 다나까軍團과 스즈끼派에 기울어 질수밖에없으나 후꾸다, 고오모또등 非주류 [illegible] 가 기세 [illegible] 이 예상되어 정국은 혼미를 거듭할것으로 보인다.

【東京=宋孝彬특파원】

◇毛찬양후 자리뜨는 葉劍英

中共 全國人民代表者大會 常務委員長葉劍英 (85)이 제5기 全人代5차회의가 개막된지 얼마 안되어 부축을 받으면서 자리를 떠나고있다。 그는 이날 개막선언도 겨우했다。 【北京26日AP 聯合】

폴란드 내달 13일 戒嚴令 해제후

拘東인사 千여명석방

야루젤스키補佐官 英TV會見

【런던UPI=聯合】 폴란드정부는 계엄선포1주년이 되는 오는 12월13일로 예상되고있는 계엄령해제조치가 취해지고난 뒤 구금중인 자유노조지지자 1천여명을 석방할 것이라고 폴란드주상겸 공산당 제1서기 보이체흐·야루젤스키 장군의 참모좌관이 25일 밝혔다.

키장군의 측근 보좌관 비에슬라프·고르니츠키는 이날 英國의 한 TV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자유노조지지자 [illegible] 는 계엄령이기때문에 계엄령이 해제되면 이같은 법적인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폴란드國民議會 (국회)는 계엄령이 선포된지 만1년이 되는 오는12월13일 회의를열고 계엄령해제안을 토의하게될것이라고 표트르·스테판스키 국회부의장이 26일 말했다.

관영PAP통신과의 인터뷰를통한 스테판스키 부의장의 이같은발표는 폴란드군사정부가 군사통치를 종식시키고 민간정부를 재수립한 계획임을 나타내는 이제까지의 조짐들가운데 가장 뚜렷한신호이다.

鄧、憲法 개정으로

軍統帥權 장악할듯

【北京AP=聯合】 중공의 실권자 鄧小平 (78) 이 신헌법에따라 신설되어 黨中央軍事위원회로부터 中共軍의 최고통수권을 인수받게될 中央軍事委의 主席직을 맡게될 가능성이있는것으로 26일 [illegible] 전해졌다.

베긴등 9명에 警告狀

팔難民학살査問委 早期總選說 나돌아

【텔아비브AP UPI=聯合】 팔레스타인 난민학살진상을 규명하고있는 이스라엘 査問委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스라엘정부가 조기총선을 실시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査問委는 25일 메나헴·베긴수상을 비롯한 9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낸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紙를 비롯한 이스라엘 신문들은 이날 査問委의 최종조사보고서가 팔레스타인 난민학살과 관련, 베긴수상을 비난하거나 그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 조기선거가 실시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이신문들은 또 査問委의 경고가 이스라엘의 정치·군사부문에 『충격』을 주었으며 마치『청천벽력』과도 같았다고 전하면서 査問委의 조사결과가 중대한 정치적결과를 몰고올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베잘렐·고르돈查問委 대변인은 베긴수상외에도 8명의 고위관리에게 공식경고장을 발송하고 査問委는 경고장 발송 [illegible] 군부장관 [illegible] 군참모총장 [illegible]

이 대변인은 또 이들9명의 관리들에게 査問委에 재출두하여 15일간의 여유를주어 [illegible] 기에 앞서 [illegible]

이스라엘査問委의 이같은 경고는 베긴수상외에도 아리엘·샤론국방상, 이츠하크·샤미르외상, 라파엘·에이 [illegible] 등에게 [illegible]

美「中東평화안」거부

PLO "自決·獨立國창설권 무시"

【다마스커스WAM=聯合】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중앙위회는 26일 레이건美대통령의 새中東평화안을 거부하고 이를간의 회의를 마쳤다.

팔레스타인 민족회의(PNO)의 할리드·알·파훔의장은 이날 회의가끝난후팔레스타인의 WAFA통신과 가진 회견을통해『레이건美대통령의 중동평화안은 우리의자결권과 PLO지도하의 팔레스타인독립국가 창설권리를 무시했다』면서『이러한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한 진정한 중동평화는 결코 이룩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중앙위회는 이집트가 팔레스타인방위를 위해 치른 희생에 깊은 감사를 보내고 아울러 이집트와 아랍권 복귀되길 요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PLO중앙위회는 요르단과같은 親서방 아랍국가들의 제한적인 지지를 통해 팔레스타인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야세르·아라파트PLO의장의 요청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아라파트의장의 평화협상에 문호를 열어주었다.

이날 현재의 黨중앙軍事委가 실용적인 이유때문에 신설되는 국가중앙軍事委에 통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黨은 全國人民代表者大會 (全人代) 대표들과의 합의에 따라 현재의 黨중앙군사위원들로 하여금 국가중앙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있을 맡게하는것을 다고 말했다.

日 歪曲교과서著者 교사들에 正訂문서

[illegible] 軍國主義 [illegible] 교과서집필자들은 26일 일선교사들에게 [illegible] 을 상대로 正誤정정문을 보내기로했다. 【東京=聯合】

◇에드워드·케네디美 상원의원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illegible] 조안여사가 지난10월16일밤 보스턴의 칸타타 싱어즈·볼에서 게리·아로노프박사와 춤을추고있는 모습。 【보스턴23日 AP聯合】

海外토픽

父母봉양 의무화 싱가포르서 검토

싱가포르정부는 노인들이 [illegible]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된 도리를 [illegible] 현재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들의 [illegible] 의무적으로 모시도록 하기위해 입법문제를 검토하고있다고. 【싱가포르=聯合】

★新婚집서 3천만원어치 現職경찰 강도질

필리핀의 한 [illegible] 에 강도가 들어 4명을 죽이고 장군을 포함한 3명에게 중상을 입힌뒤 약 46만 페소 (약3천8백만원)어치의 귀금속,현금등을 털어 달아났는데 나중에 잡고보니 범인은 현직경찰관과 경찰지망생등 2명이었다고.

살해된 사람들은 2명의 가정부와 그중 한가정부를 만나러 마침 이집을 방문하고있던 한 부부로 범인들은 장군의집으로 [illegible] 으로 들어와 총을 쏘며 행패 [illegible] 두팔을 절단해야하는 중상을 입었고 털어간 금품은 모두 회수했다. 【마닐라=AP】

保護무역방지「多者체제強化」

GATT閣僚회의 폐막

南北대결… 가까스로 선언문채택

【제네바=曹相泰특파원】 지난2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열린 제38차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 총회는 6일간의 회의를마치고 27일하오 폐막됐다. 한국을비롯, 美·日·EEC등 88개회원국 무역담당 각료들이 참가한 이번 GATT각료회의는 세계교역확대를위해 보호무역주의의 회기적완화를 주장한 개발도상국들과 이를 강화하려는 선진국들과의 견해차이로 처음부터 팽팽한 대결을 보였으나 막바지협상으로 각료회의 선언문을 가까스로 채택했다.

이번 각료회의는 각료선언문을통해 현재의 국제경제위기등을 타개키위해 보호무역주의의 만연을 방지하고 多者間무역체제를 유지강화키로했다.

또한 마지막까지 주요쟁점이었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GATT이사회가 협정안을 작성해서 83년총회에 제출토록 합의했고 분쟁해결절차를 보강하고 특히 제소과정에서 당사국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농산물의 무역은 농업위원회를 설치해 농산물수출에대한 보조금등을검토한후 결과를 84년총회에서 검토키로했고 서비스교역자유화는 84년까지 서비스무역장벽리스트작성및서비스에대한GATT규정적용을검토키로했다.

그러나 이번각료회의는 최근의 국제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세계무역자유화를위한 적극적인 내용보다 주로 주요쟁점에대한 연구내지 검토를 하는선에서 선언문이 합의됨으로써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해야할 GATT의 장래역할이 의문시되게됐다.

또한 개도국이나 미국EEC등 주요당사자들이 모두불만스러운입장으로 선언문이채택됨으로써 각료회의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보호무역주의적경향이 강화될 우려도 낳고있다.

株價、오름勢

증시는 주말에 오름세로돌아섰다.

2주가까이 큰등락없이 횡보현상을 보이던株價는 주말에 접어들면서 증권회사들이 상품으로 계속사들이고 인도네시아 유전개발과가 공표되리란는 루머가 나돌아오름세를 보였다.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前場만열린이날 석유화학, 전기기계, 건설, 무역업종등을포함 대부분의 종목이 전날장보다 오름세로 거래됐고 평균수준에 달해 활발했다.

136개 종목이 오르고 63개종목이 내렸으며 46개종목이 보합세를 보였다. 종합주가지수는 1백71·1로 전일에 비해 1·3포인트가 올랐고 거래량은 8백86만주, 약정대금은 61억원.

韓-아세안經協참석 한국측代表團 결성

제4차韓·아세안 경제계지도자협의회에 파견될 한국대표단이 27일 全經聯에서 결성됐다.

鄭周永全經聯회장을 단장으로한 우리대표단은 오는12월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열리는 한·아세안 경제계지도자협의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아세안 경제계대표들과 상호경제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대표단은 또 12월7일부터 11일까지 말레이지아를 방문, 모하메드·마하티르 말레이지아수상및 경제각료 그리고 민간경제계 대표들을만나韓·아세안간의 상호보완에 입각한 협력증대방안을광범위하게 협의하게된다.

韓·美연합 空中火力 훈련

우리공군의 F5 팬텀, 국산제공호, 주한미공군의 F16, A10, OV10기및 B52 폭격기등 신예전투전략기가 대거참가한 한미연합 공중화력훈련이 23일하오 중부전선 ○○지역에서 펼쳐졌다.

尹誠敏국방부장관·3군참모총장·세네월드한미연합사령관등이 참관한 이날 훈련에서 양국공군기들은 미사일·로킷트와 각종폭탄을 목표물에 명중, 무서운 파괴력을과시했다.

또 이훈련은 실전적상황하에서의 연합작전과 지상군에대한 근접지원능력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속전속결을 특징으로 한는 현대전에서초전에 전세를 가늠하는 공군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記者의 눈

國會와 豫算삭감

비가 초과 책정되었다고밝혔다.

[illegible] 축 예산안이 막바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모되어 나올지 못궁금하다.

그러나 대체적인 形體는 이미 드러나고 있는것 같다. 稅法小委에서 이미결론을 내린것처럼 국민의稅

[illegible] 대개 이러한 바탕위에서 예산심의의 막바지 고비인 增減조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것 같다.

民正黨은 당초부터 이번 예산안은 긴축 赤字예산이 어서 삭감보다는 우선순위 [illegible] 의 재조정에 예산심의의 力點이 주어져야한다고 강조 [illegible]

그동안 어저렵고 여수선한 與野협상속에서 稅法 발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 국회財務委에서 타협을 보아 歲入규모가 확정되고 [illegible] 豫決委는 구체적인 예산안 의 삭감조정작업에 주말도 일도 잊고 있다.

建國이래 최초의 赤字간 부담을 늘려 정부의 國債 해왔다. 그러나 民韓黨이 나 국민당은 삭감의 여지가 많다면서 계속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legible] 이두가지 命題를 두고 고민하던 국회는 결국 세금을 늘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국회는 역시 국민 회 다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측은 金俊成부총리의 증언을통해 새로 운 삭감요인으로 GNP잠 정추계때 3백억원의 국방 赤字편성으로 출발하는것

도 이번에산국회는 하나의 장이 메아리치는 가운데서 公約된 고민을 안고있는 것이다. 방대한 국가살림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고 이는 곧 국민의부담과직결된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는 경제 사회적여건을 최대한감안, 국민의 稅부담을 最小化하는선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전체 세입규모를 한푼도 깎지 않은 前例없는 기록이나 세금을 올리는 珍記 [illegible] 【黃昭雄기자】

民正黨서 환송회

순방앞둔 金총리

民正黨은 27일저녁 서울시내 D음식점에서 오는3일中南美순방에 나서는 金相浹국무총리와 12월중순께 中東방문을 나서는 金俊成부총리등을 위한 환송연을 가졌다.

이자리엔 民正黨에서 李載瀅대표, 權翊鉉사무총장, 陳懿鍾정책위의장, 李相彩사무차장등 黨職者들이, 정부측에서는 金相浹 徐相喆

[illegible] 자부장관도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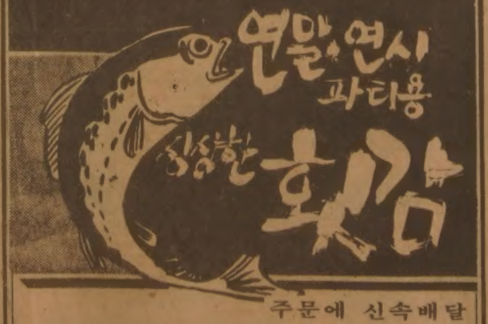
內外動靜

金秉洙보사부차관은 세계은행경제개발연구원의 초청을 받고 美워싱턴에서 열리는 농촌지역보건정책세미나에 참석키위해 27일하오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했다. 金차관은 오는29일부터 12월10일까지 세미나에 참석한 뒤 하와이의 유료양로원을 둘러보고 내달15일 귀국할 예정이다.

문화인의 반려자

한국일보·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주문에 신속배달
● 횟감 : *민어 *튜나
● 신선한 생선 : *아지 *가재미 *동태 *새우 *물오징어
항상 준비되어 있읍니다.
(파티용 TRAY는 3일전 예약바람)
3413 FIELD GATE DR. MISSI.
(블로어와 딕시에서 2블락 동쪽에 위치)
624-3092 임 호 빈
FOREST GLEN SEAFOOD

Grant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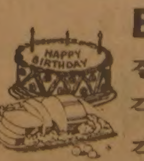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원
536-6250 호세환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HoneyHome BakeShop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 TRAY
주문 받습니다.
☎ : 961-9780 MRS. 장
☎ : 536-1908(R)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아침한때

「點數」만 아깝게 여겨서야…

人氣學科 집착말고 미래의 變化를 읽자

金貞欽 (高麗大 物理學교수)

10년이면 江山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이 그렇다. 요즘에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과학용어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加速度的이다.

에릭·오츠번은 그의 著書「Running Wild—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미친듯 달리다—다가올 다음 産業革命)」에서 앞으로 25년사이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의 半은 없어지고 새로운 50%의 직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豫言하고 있다. 눈부신 현대文明의 발전템포와 짧은 周期의 우리 주변세계 변화만 보아도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지적이다.

25년후 새職業은

예시하면 個人컴퓨터·TV電話·워드프로세서등 事務自動化의 世上이 [illegible] 事務自動化(OA, 오피스 오토메이션)가 [illegible] 팩시밀리와 개인컴퓨터가 그 主役이다. 팩시밀리(Facsimile)란 文書圖形模寫電送裝置이다. 전화줄에 연결하고 다이얼만 돌려 상대방을 불러대고, 단추를 누르면 먼리 1만5천km나 떨어진 뉴욕까지 단 20초면 복잡한 숱이 그대로 보내줄수 있다. [illegible]

1년이 [illegible] 20種機 [illegible]

[illegible]

가속화될 것이다. 타이피스트는 워드프로세서 打字手로 職種이 바뀌게되고, 회사간부는 책상위에 놓인 개인컴퓨터를 두들겨 뉴욕의 株式市場 상황을 알아보고 회사의 경영계획을 세우는풍경이 곧 펼쳐지게 된다.

遠隔複寫機 또는 電子郵便이라고도불리는 팩시밀리의 보급으로 우체국의 일은 도전을 받는다. 웬만한 편지는 2~3일이나 기다릴 필요없이 단20초면 보낼 수 있다. 서울에서 光州로건, 서울에서파리로건세계어느곳에라도말이다.

사무자동화는 미래사회의 오직 단면에 불과하다. 모든 기계가 이제 急速한 속도로 자동화·電文化·頭腦化가 돼 간다. 무인공장이 생기고 우주공장이 생기면서 새로운 職種이 생기게 된다. 안방에 앉아 전화다이얼만 돌리면 뉴욕이 나오고 런던이 나오는 시대(우리나라에서도 來年부터 國際DDD施設이 設置되기 시작한다. 개인 컴퓨터강습소가 늘어나고, 정보를 파는 데이터 베이스(Data Base)회사가 매달 몇개씩이나 늘어날것이다.

生疎한 산업 빛본다

그리하여 情報産業 知識産業이라 總稱되는 새로운 산업이 갑자기 늘어난다. 또 위치산업 시간산업 不安産業이라 불리는 生疎한 산업이 화려해지게 된다. 不安産業이란 보험이나 보안산업에서 美容·學習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대와같은 不確實性의 시대에는 사람들은 미래에대한 不安을 느끼게 된다. 그 불안을 덜어주고 緩和시켜주는산업이 不安산업이다. 교육산업도 넓은 의미에서는 不安산업이다.

위치산업이란 物財이건 정보이건 空間位置를 채워주는 산업을 뜻한다. 예컨대 運輸業·倉庫業·保管業은 물론이거니와 銀行·음식(음식을 식탁에서 위속으로 이동), 여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간산업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갖가지 시간을 가공해 주는 산업이다. 시간 지내기를 즐겁게 해주는 사우나탕이나 전자게임부터 시작해서 스포츠·영화·오락·여행·유흥업 등등 갖가지가 이 영역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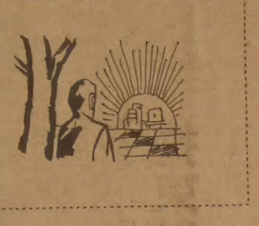
물론 物財를 생산하는 공업분야에서도 새로운 분야, 예컨대 尖端技術이라 불리는 電子産業·光通信및 光産業·새素材産業·유전자산업·우주산업·海洋産業등등이 전성기를 곧 맞이하게된다.

앨빈·토플러가 말하는 이른바 제3의물결이 휩쓸어와 세계가 뒤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나아갈길 適性맞게

이렇게 세상이 눈부시게 바뀌려 하고있고 또 바뀌고있는 이때에 아직도 수많은 학생들은 미래세계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舊態依然하게 舊韓末時代에나 통용되던 立身出世의 길을 꿈꾸고 있다. 권력을 쥘수있고 돈을 왕창 벌수있는 학과에 들어가기만을 꿈꾼다면 誤算일 것이다. 예컨대 개인병원시대는 이미 지나고 있다. 의사가 되어 돈을벌고, 老後에는 國會議員에라도 出馬하려는 舊式의 圖式은 통용되지 않는다. 또 高等考試에 합격해서 출세하려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또 현재 就業이 잘 되는 학과, 인기있는 학과가 5년후 10년후에도 계속 그렇다는 보장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인기가 없는 학과가 의외로 각광을 받게 될지 누가 아느냐 말이다. 예컨대 純粹科學처럼 현재는 빛도 나지않고, 就業도 잘 안되는 학과는 研究開發이 重要視되는 미래에선 오히려 주역을 맡게 될는지도 모른다. GNP가 올라가면 국가도 개인도 순수한 학문분야에서 삶의 보람을 찾아내려 할는지도 모른다. 어느 나라나 GNP가 올라가면 연구자가 대우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생활이 풍족해지면 사람은 진리를 探究할 욕망이 생기고, 철학을 찾게되고 예술을 찾게된다. 권력과 돈을 찾는것은 가난했던 시대의 유물인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너는 學力考査에서 3백점이상을 땄으니 ××대학의 △△학과를 가라고 권한다. 난센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점수가 좋으니까 法科를 찾고 醫科를 찾고 상과를 찾는다니 말이 안된다. 왜 자기가 하고싶은 공부를하려하지않는가. 개인이나 출신교의 체면을 위해 학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간혹은 그런소문도 없지는 않다.

또 미래세계에서 꼭 알맞는 학과란것도 있을리없다. 미래가 어떻게될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말이다. 단지 어느 학과이건 자기가 하고싶은학문을 할수 있다면 그 학과가 최고의 학과이다. 단지 그 학문분야를 공부하면서 한창 닥쳐올 미래를 읽어내고 대처해나갈 능력과 비전만 체득하면 된다.

교육이란 결국 미래에대한 어떤 비전으로부터 생겨나며 그비전에대한 對處能力을 키우는데 그本質이 있으니말이다.

大入學力考査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대학을 택할때 자신의 적성에 어떤 과가 맞는지를 냉정히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各黨의 全黨대회延期論

關心은 改編에

○…정기국회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예산안 처리도 한숨 돌리게 되자 각 정당마다 내년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民正·民韓·국민등 3黨은 모두 내년 1월로 創黨2년을 맞아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어 있지만 民正黨의 延期확정을 위시, 다른정당들도 사정에 따라 연기움직임속에 黨體制개편이 예상되어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특히 야당의 경우 현지도부에 대한 도전이 공공연한 비밀로 드러나고있어 黨權의 向方을 두고 자못 복잡한 움직임이다.

4월께 總選체제 구상 民正

○…民正黨은 지난 22일의 中央執行委에서 이미 전당대회를 내년 上半期중에 열기로 결정했다. 당초 3월초로 연기할뜻을 비치더니 아예 6월이전에 한다고 넉넉하게 융통성을 두어 결정한것이다.

이에따라 대회는 3월초보다 더 늦어져 3월중순 이후부터 4월까지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년마다 열리는 정기 전당대회를 늦추는 이유로서 정기국회가 12월18일에 끝나고 곧이어 韓·日의원연맹총회가 東京에서 열리는데다 年末年始행사로 바빠지기때문에 1월15일이전에 대회준비를 할 수없다는 것이다.

대회준비작업이란 구체적으로 92개지구당과 13개市道支部의 개편대회를 사전에 치러야하고 2천여명의 중앙위원人選등 할일이 많다.

92개지구당은 현재 모두 현역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어 사고지구당도 없고 개편대상 위원장도 없지만 중앙의주요 당직자들이 지구당대회를 지켜 둘러봐야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할것은 틀림없다.

작년처럼 급박한 정치日程을 단시일내에 끝내야할 필요성도 없기때문에 여유있게 日程을 잡아 創黨때와는 전혀 다른 成長한 民正黨의 이미지를 지방으로 擴散, 국민과 당원들에게 새로운 黨이미지를 심는다는 구상도 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보다 정치적인 이유의 하나는 12代總選에 대한 장기布石이란 분석도 있다.

즉 내년 3~4월 전당대회를 통해 들어서는 체제가 85년 총선까지 치르도록하고 총선뒤에 黨體개편으로 새體制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만일 예정대로 1월15일에 전당대회를 할 경우 선거가 있는 85년에는 1월에 당직을 개편하고 선거가 끝난 뒤인 3~4월에 다시 개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의하나는 내년 4월에있을 국회요직개편과 시기를맞추어 당직개편을 한꺼번에 하자는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內閣개편도 이러한 시기에 맞춰질수도 있다는 추측도 상당히 유력하게 나돌고있다.

民正黨은 창당이래 그동안 수차례 당직개편을 통해 體制정비를 해왔지만 創黨3년째를 맞는 동시에 85년의 총선을 치러야한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내년초에 대폭적인개편이 불가피한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더우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등 국회요직도 모두 내년4월로 임기가 끝나기때문에 黨의體質개선과 제2의創黨이란 차원에서 대폭적인政界개편이 예상된다.

單一化기류속 靜中動 民韓

○…民韓黨은 黨權을 놓고 표면적으로는 애써「둔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안으로는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靜中動의 상태.

우선 전당대회시기에는 黨憲에따른 내년「1월17일 이전 斷行說」과「1~2개월 延期說」이 있지만 後者가 유력한편이다.

延期說의 가장 큰 근거는 정기국회 막바지 黨力을 집중시켜도 힘 부친 예산안 심사, 계류중인 정치의안등이 산적했는데 1월 전당대회에 黨力을 소모시킬수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동시에 黨憲에 따르더라도 전당대회전에 전국 92개 지구당을 우선 전면개편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상황을 고려하더라도 2월하순을 넘길수는 없다는 진단아래 사무처는 事故黨部와 不實지구당의 정비, 새로운 조직책선정을 위한 조직강화, 特委의 구성등 전당대회를 치르기위한 사전 整地작업을 조용히 진행중이다.

이렇듯 靜中動의 분위기에서도 총재후보의 單一化論이 적잖게 거론되고 있음은 黨正의 향방을 어느정도나마 예견케 한다.

劉永祐 李泰九부총재 金判述고문등 民老級인사들은 중심으로 번지기시작한 單一化論은 柳致松총재의 再추대를 고정화한채「부총재競選論」이 대두되고있다.

사실 지난 6월의 黨職파동을 한고비로 표면화됐던 辛相佑전사무총장, 高在淸전총무, 韓英洙전정책심의회 의장등「黨權도전연합세력」의 銳鋒이 무디어짐에따라 判勢는 柳총재쪽으로 기울어질셈이다.

더구나 柳총재 특유의「人和와 溫柔」를 바탕으로한 用兵術에다 韓전의원의 구속사태까지 겹치고 보니 어느 누구보다 判勢에 민감한 당내 기류는 單一化論까지 불러 일으키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黨內요인 보다는 外의 氣流에 따라「의외의 突風」을 몰고온점등을 고려할때 單一化의 일방기운에 쐐기를 박을 變數요인은 곳곳에 잠복해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黨職파동을 고비로「黨權도전」은 일단 주춤해졌지만「黨權 의식세력」은 여전한채 당무회의가 열리는날이면 의식적인「큰 목소리」가 쉬임없이 나온게사실이다.

「큰 목소리」는 지도부를겨냥한소리, 상대를의식한 소리, 자기를알리는 소리등 복합적인성격을 띠고있는데 辛相佑·高在淸·吳洪錫의원의 先唱이 제일많은편이었고 최근에는 高의원이 두드러진편이다.

창당의 産婆役이자 한때는 당내 제1의실력자였던 辛相佑전사무총장의 주변에는 洪思德·韓光玉·申元湜·趙柱衡의원등 적잖은「돌쇠의원」(?)들이 陣을 치고있다.

또한 斗富力強한 高在淸전원내총무의주변에도 柳晙相·閔炳楚·金台植의원을비롯 당내 最多數를 자랑하는 湖南의원들이 발길을 대고있다.

이들 두 중진의 뚜렷한 목적 방향과는 달리 金鉉圭정책심의회 의장이 睦堯相 李燦鉉·朴寬用·黃山城 의원등 少壯 실력자들과「돈독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실정.

특히 신진重鎭으로 등장한 金文錫인권옹호위원장도 尹起大·金永俊·李元範·徐錫烈의원등과함께 黨內한목을위한 뿌리내리기에 열심이고 梁在港 훈련원장은 설움받는 院外 위원장을 중심으로 만만찮은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밖에도 金殷夏국회부의장을 비롯 吳洪錫·金承穆·金元基·許京萬·趙重衍의원등 再選이상 의원들은 전통야당의 뿌리를 바탕으로『중진대접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1~2개월 연기가 확실한 民韓黨의 전당대회는 死生決斷式의 黨權도전보다 85년의 布石과 부총재 국회부의장 黨6役등 이른바 要職확보를계산한 도전이 두드러질것으로 보인다.

兩陣營 벌써 票밭점검 국민

○…대회연기를 구체화한 民正·民韓黨에 비해 국민당은 黨憲대로 내년1월23일을 전후해서 전당대회를 연다는방침아래 이미 실무차원의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1월대회와 관련한 화제들이 심심치않게 나오고있는데 초점인 黨權경쟁은 金鍾哲총재의 再任추진과 院外총재의 限界性과 지도력의 빈약을 들어 李萬燮부총재의 도전에 모아지고있다.

이에따라 金총재와 李부총재측은 벌써부터 사실상 은밀하게 票점검과 조직확대에 착수했다는소식.

이와달리 李鍾贊 전당대회의장과 李東鎭 총무를 주축으로한 重鎭들은「조용한 緩衝會」를 전제로「세력규합」을 도모하고 있어 주목.

金총재측은 총재자신이 움직이는 대신 尹錫民부총재 趙炳鳳·李成一의원등이 연쇄접촉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정도로만 알려지고 있는데 金총재가 전면에 나선것은 지난20일께 5명의 국회예결위원을 弘濟洞자택으로 불러 오찬을 베풀고 위로한것이고작.

李부총재측도 자신이 직접 움직이는것보다는「慶北師團」으로 불리는 측근의원들이 밑바닥조직에 熱을 올리고 있는데 이들은『金총재의 지도노선으로는 次期선거에서 현재의 의석(35석)조차 유지하기 힘들다』는 주장으로 한몫을 하고있는 실정.

院內의 金총재측근은 尹錫民부총재, 李成一대변인, 趙炳鳳·姜棋弼의원등이고 李부총재쪽으로는 李聖秀, 金永生, 朴在旭, 金基洙의원등 慶北師團외에 趙一濟, 金鍾河의원등 慶南출신 의원들이 가세하고 있지만 金基洙의원만이「義理의 돌쇠」임을 천명할뿐 나머지는 強度가 약한것이 李부총재쪽의 약점.

반면 中道세력을 자처하는 李의장·李총무등이 이른바「協議體」구성추진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여기에 黨內중진이라고 할수있는 趙炳奎 李聖秀의원등이 호응하고있어 앞으로 黨權의 向方을 가늠할 意外의 變數로 등장할것이 예상된다.

黨총재후보를 대화나 중재를통해 사전조정, 全黨대회를 祝祭로 끝내야만 黨이 분열되지않고 살아남는다는 명분을 내세운 이 움직임을 주도하고있는 李총무의 얘기.

27일현재 18명의 소속의원들로부터 서명을받았다는 소식인데 趙炳奎, 金完泰, 林德圭, 李泰模, 李聖秀, 金遺腹, 金翰首의원등 7명이 서명을 한것이 확실하고 나머지는 두루 서명의사를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또다른 제6者로 등장한 李의장은『나에대한 오해가 있다면 나도 서명을 않고 제3자의 위치에 머무르겠다』고 해명하고 있지만『치열한 전당대회로 黨이 상처받을 우려가 있다면 李의장이 등장할 가능성도있다』고 某의원은 함축성있는 시사를 하기도했다. 【政治部】

메아리

續 數字풀이

金昌悅 <編輯委員>

우리나라에는 지금 17개의 市·道가 있다. 특별시 하나, 직할시 셋, 道 열셋이 그 내역이다. 작년 여름 大邱와 仁川의 직할시 승격으로 이른바 上層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났지만, 1백만 도시로 발돋움하는 도시가 더 있으므로, 앞으로 그 수는 더 늘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1백85개의 市·郡이 있다. 46개 市, 1백39郡이 그 내역이다. 이들 역시 작년 여름 西歸浦등 10개市의 승격으로 그 수가 늘었지만, 앞으로 도시화가 진전되면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市·郡밑에는 邑·面이 있다. 그 수는 1백88개읍, 1천2백53개면을 합쳐 1천4백41이다. 1백88개읍 중 상당수가 멀잖아 市로 승격될 터이므로, 이들의 수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邑·面아래 里·洞은 모두 1만8천7백22개가 있다. 이들은 이른바 公簿上의 里·洞이며, 행정단위가 되는 行政里·洞은 3만7천2백44개에 이른다. 이들을 달리 개편하지 않는다면, 行政里·洞의 숫자는 도시화와 농촌 過疎化의 결과로, 시골의 里가 줄며, 도시의 洞이 느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행정조직은 층층이다. 그 바닥인 里·洞 밑에 있는것이 統·班이다. 그 내역은 統이 3천2백70개, 班이 32만1천6백36개(82년3월現在). 전국을 평균쳐서 25.2家口마다 班이 있는 셈이다. 이 숫자 역시 농촌은 줄고, 도시에서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班은 달에 한번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모임을 갖는다. 이름하여 班常會라 한다. 모임의 案件은 중앙에서 시달하는 主議題에, 市·郡에서 지역사정에 맞게 고른 副議題, 그리고 반원이 제기하는 관심거리들이다. 6년전인 76년 5월에 班常會가 처음 열렸을때 중앙에서 시달한 主議題는「이웃간 인사하고 대화 나누기」. 그에 따른 案件은 도시에서의「長髮단속」과 농촌의「모 일찍 내기」등 11건이었다.

班常會의 참석률은 금년 1~3월중 도시에서 87%, 농촌에서 88.3%. 전국 평균 87.5%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家口數를 8백만 잡고, 전국에서 7백만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32만1천6백36개의 모임을 갖는셈이다. 이들은 같은 議題를 놓고 하며, 텔레비전의 똑같은 弘報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만일 人工衛星따위로 이 광경을 한 눈에 굽어 볼 수있는 장치가 있다면, 누구든 그 壯觀에 놀랄 것이다.

班常會의 성과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숫자로 잡기가 편하고, 主務관서의 弘報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班常會의 건의사항과 그 처리결과다.

내무부 집계에 의하면 班常會의 건의사항은 현재 총 1백19만1천4백28건이다. 班常會가 생긴이래 71개월사이 한달 평균 1만6천7백80건, 금년들어 석달동안은 한달 1만5천5백건꼴이다. 그내용은 보건·위생, 도로·교통, 영농의 순으로 많으나, 기타가 26.5%에 이를 만큼 다양하다. 대개의 내용은 생활의 불편을 덜고 宿願을 풀어 달라는 것이다.

이많은 건의사항가운데 76.7%, 91만4천3백29건은 해결을보았다. 나머지 27만5천건은 不發로 끝났다.

不發의 원인중에는 예산에 밀린것이 상당수 들어 있을 것 같다. 그사이 돈을 들여야한다고 판단된 건의사항은 14만9천25건, 그 총액은 4백67억원이다. 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었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班常會가 각출한 이웃돕기등 성금은 1백34억원, 마을金庫 저축은 1천5백86억원에 이르렀다.

이 것이 달에 한번 열리는 班常會의 숫자 풀이다.

그엄청난 숫자를 풀어 본 소감의 한가지는 이런 것이다.

그사이 1백50만건 가까운 건의가 나왔다니 우리 생활주변에는 불편과 宿願이 많기도 하구나. 그중 근 1백만건을 별 예산조치도 없이 해결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것을 건의가 없으면 왜 해결하지 못할까.

그리고, 근 1백만건의 불편과 宿願을 덜고도, 왜 지금껏 달에 1만5천여건씩의 건의사항이 나올까. 근 1백만건의 불편과 宿願을 덜었다는 숫자만큼, 우리 생활주변이 달라졌는가. (아니면, 앞으로 1백만건 쯤 더 해결하면, 달라진 것이 피부로 느껴질까.)

따분한 숫자풀이 뒤끝에, 숫자풀이란 결국 숫자풀이에 그친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행정의 숫자풀이는, 차라리 숫자놀음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새건등
판매·LEASING·서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 751-7664 (로렌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Mirage Boutque
숙녀복 전당
(구 코스모스)

크리스마스 선물용 상품권 판매
할인판매
ㅁ드레스 종류
ㅁ선물용 부라우스
ㅁ물세무 투피스(size 6,8,10)
ㅁ각종 자켙(Pig skin, Lamb skin, Rabbit Fur)
ㅁ겨울용 오바 코트
대표 최은경
☎ : 530-1870
704 Bloor st. W(아리랑하우스 옆)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겸판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어×영 남쪽)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한국일보 특집판

抗日義擧 기폭제 「斷髮令」 事緣

現代史의 現場 ⑥

題字 原谷 金基昇

抗日義兵 기폭제… 斷髮令

"상투"는 朝鮮人 민족魂 氣꺾는 수단으로 利用

時期잘못… 俄館播遷후 폐지발표

◇상투는 양반·상놈에 관계없이 성인이 되면 누구나 트는 풍습. 주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상투는 韓민족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東夷族특유의 갓文化를 창조했다.

【鄭逸和기자】

強要에 의한 變化가 不幸

목숨까지바친 拒否와 民族의 事緣

(獨立기념관건립 추진위부위원장 國會議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79>

朴婉緖 作

金光培 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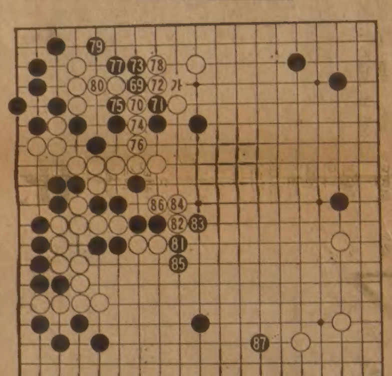
부드러운 겨울 ⑤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제14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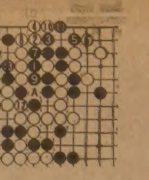
第4局 第5譜 69~87 (각5시간·덤5집반)

白 (4段) 姜勳 〈1勝〉

黑 (4段) 李相澈 〈1勝〉



判斷의 差異點



【一九】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영어설교 오후1:30 오후 2: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밤9시 기관모임 3:20 주일저녁 4:20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금요저녁10:30 수요저녁 7: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4: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은성장로교회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266—8820(R) 694—9691(교
제일장로교회	김웅출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1:00 금요오후 7:3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금요오후 9:00 성경공부 2:20	502 Bathurst	245—4980 전화설교
천주교회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수요집회 밤8시 주일오후 4:30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주일학교 3:00 예배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운동장없는 學校 생긴다

문교부「학교시설·설비기준령」年內개정

校地難해소、규모도縮小

서울, 부산등 대도시 초·중·고교의 시설과 학급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문교부는 27일 날로 심해지는 대도시학교의 교지확보난을 해소하고 대형화및 과밀화현상을 막기위한「초·중·고교 소형화계획」을 확정했다. 이를위해 문교부는 우선 서울, 부산등 대도시지역의 각급학교 교지와 운동장등의 크기를 규정한 현행「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을 연말까지 대폭 축소, 개정키로 했다. 또 이계획은 계획기간중 교지의 안정적확보를위해 ▲교지확보지에대한 용도제한의 완화, 또는 해제 ▲도시계획사업승인때 교지의 소요량위치등을 해당지역 교육위원회와 사전협의하는것을 의무화하는것을 골자로하고있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앞으로 교지와 운동장의 규모가 대폭 작아질것에대비, 기존 인근학교의 큰운동장을 여러학교가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 할수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같은 학교시설기준령의 개정작업은 현재 문교부가 건설부등 관계기관과 협의를통해 추진하고있는데 금년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내년부터 이기준에 맞게 학교를 신설하거나 축소할수 있게된다.

학교의 소형화는 기존학교의 경우는 과대규모의 학급을 따로따로 분리, 2개이상의 학교로 만들고, 신설학교는 새롭게 축소조정된 시설기준에 따라 작게 짓도록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운동장이없는 학교도 생길수있게됐다.

한편 현행 학교시설기준령에의하면 교사(校舍)대지는 기준면적의 2·5배, 운동장은 24학급기준으로 국민학교 7천8백㎡, 중·고등학교 9천1백㎡로 되어있어 대도시에서는 학교신설용으로 마땅한 교지마련에 큰곤란을 겪어왔다.

문교부 관계자는『학교의 대형화는 교지확보에 어려움을 줄뿐더러 교육의 비인간화와 사제지간의 비인격화를초래하기 때문에 교육적차원에서도 선진외국처럼 소형학교화의 추진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국민학교의경우 81년말현재 36학급을 초과하는 학교가 7백53개교로 전체의 12%에 육박하고 이중 반에 가까운 3백36개학교가 서울과 부산에 집중돼있다. 【李鍾九기자】

다방에불 4명燒死

【廣州】27일 새벽3시30분께 경기廣州郡中部面新長里 427 중앙다방 (주인 李혜숙·38)에서 불이나 잠자던 다방종업원 金선희양(22)등 4명이 숨지고 韓금순양(20)등 2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불은 다방내부 35평과 의자 및 주방기구등을 모두태워 3백만원 (경찰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꺼졌다. 【趙】

잠수부 拘束영장 宋代青磁 건져판

서울鍾路경찰서는 27일 沈龍在씨(34·잠수부·忠南保寧郡熊川面)를 문화재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沈씨는 지난7월 忠南保寧郡 앞바다에서 패조개채취작업을 하던중 宋代것으로보이는 청자한아리 1점을건져 수배된 골동품상에게 5백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沈씨는 지난7월 일본인에게 新安해저유물1점을 판혐의로 구속된 孫壽錫씨 (48·구속)의 소장품을 조사하던 경찰에의해 이같은 사실이밝혀져「궁핍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골목길서 淫畫팔아

서울江南경찰서는 27일 宗榮씨 (29·서울道峰區彌阿7洞82의359)를 음화등의 반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의하면 宗씨는 2년전부터 서울中區南倉洞南大門시장 골목에서 라이터노점상을 하면서 지난달27일 東豆川아줌마라는 40대여인으로부터 흉흉제라는 음란성인용필름이든 미니화화경을 1개에 1천원씩 35개를구입, 지난10일 趙濟鎬씨 (35)등에게 팔았다는것.

해외研修학점 인정

外大, 내년부터 각국大學과 結緣·교류

내년도부터 대학교 재학생들이 단기해외연수로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을 국내에서도 인정받을수있는 학점교류제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한국외국어大는 미국의 캘리포니아大 버클리분교 (UCB)와 자매결연협정을 맺고 학점교류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키로했다.

외국어大가 26일 밝힌 이 학점교류제에 의하면 우선 내년 여름 방학부터 50명정도의 단기해외어학연수희망 학생을 시험을 거쳐 선발, 美캘리포니아大에서 5주간의 영어연수를 받게한뒤 연수기간중의 성적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大로부터 학점을 받게한뒤 본교에서 이를 정규학점으로 인정케 한다는것.

外大는 앞으로 이학점교류제를 점차확대, 방학이아닌 정규학기동안 다른과목에 적용키로했다. 外大의 한관계자는『이제도는 점차 늘어나고있는 외국대학과의 학문적교류를 위해 필요할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대학생들의 단기 해외연수의 바람직한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있다』고 말했다.

외국어大는 이 학점교류제의 실시를위해 이미 지난9월 캘리포니아大와 자매결연협정을 맺었다.

外大가 마련한 학점인정에 의하면 지금까지 평균13학점 이상의 성적과 지도교수추천등 일정자격만갖추면 거의제한없이 해외연수를 승인해오던것을바꾸어 성적과 추천·면접등으로 1차희망생을 가려낸후 다시 연수희망어학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한 선발고사를 치러 이 시험에 합격한 우수한 학생만을 자매결연대학에 보내는것.

또 자매결연대학은 연수기간중 연수생들에 대한 성적평가를 수시로 실시, 성적표등을 주며 외국어대에 통보하고 정식수료증을 주어 연수기간중 연수를 감당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양교간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재량으로 중도귀국시키게된다.

稀貴鳥·철새保護策 마련

내무부, 전국1백27개소 擴大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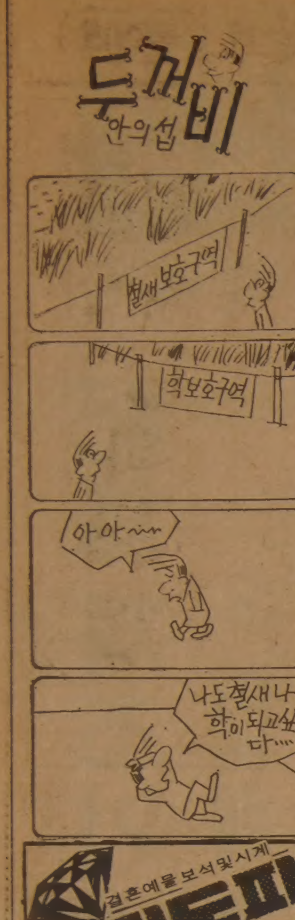
내무부는 27일 철새와 희귀조류를 보호하기위해 철새도래지와 서식지가 국토개발사업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부처끼리 보호대책을 강구토록했다.

내무부는 이날 마련한 조류보호 종합대책에서 ▲철새가 찾아오는 전국 1백27개소를 조수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하고 ▲희귀또는 멸종위기에있는 조류의 서식지에대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며 ▲관광지와 도시주변공원 유원지 고속도 국도등을 수렵금지 구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천연기념물 먹황새 濟州서 3마리확인

【濟州】최근 황새와 따오기가 찾아온데 이어 26일하오에는 천연기념물 2백호인 희귀조먹황새 2마리가 北濟州郡翰京面龍水里 龍水저수지에 나타났다. 먹황새는 이날하오5시께주민 김영수씨(49·翰京面高山里)가발견, 濟州市에 알려와 조류학자 박형신교수 (47·濟州大)가 확인했다.

박교수에의하면 이새의몸길이는 95㎝, 부리길이 15㎝, 날개50㎝로 부리와 다리는붉은색이며 몸통은 검은색, 앞가슴은 흰색을 띠고 있는데 먼저 찾아온 황새 3마리와 어울려 저수지주변에서 먹이를 찾고있었다는것. 【鄭】



◇서울시청앞광장에서 노니는 비둘기떼. 그러나 올림픽의 하늘을 비상할 축제용으로는 절대수가 모자랄 전망이어서 걱정이다.

비둘기 非常

「88올림픽」에 1萬마리 필요한데…

서울市엔 겨우 2천마리뿐

飼育계획 豫算없어 白紙化

「비둘기를 확보하라」서울시청에 비둘기비상이 걸렸다. 오는 88년 올림픽 개막식때 1만마리를 하늘에 날려 올림픽 붐을 키우고있지만 아무리 헤아려봐도 2천1백여마리밖에 안된다. 1만마리를 날리기위해서는 적어도 2만마리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 자연증식에 기대하는 형편인데다 그나마있는 비둘기들도 대기오염탓인지 죽어버리는 것이 많아 문제다.

더구나 현재 사육중인 집비둘기 (伏巢性)보다 번식력·귀소성이 뛰어난 전서구 (傳書鳩)를 쓰는것이 좋기때문에 이의확보에 골치를 썩이고 있는것. 현재와같은 상태라면 수도녹화사업에 지방의 대형목을「징발」하는것처럼 지방시도의 비둘기를 동원해야하는 사태가 예상되는데 84년 올림픽개최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비둘기문제로 고심하고있다는 것을 보면 시민과새가 함께쉬는공간을 마련하면서 비둘기를 제대로 거두는 것이 만만찮은 일임을 짐작케한다.

비둘기가 올림픽에 쓰인것은 로마대회때부터 선수단입장과 개막식에이어 8번째로 3발의 축포와함께 수천마리를 창공에 날리는것이 관례다. 몇마리를 날려야 한다는 규정은 물론없으나 서울시가 1만마리 숫자를 잡은 것은 지난64년 東京올림픽때 8천마리를 날렸으니 최소한 1만마리는 써야 체면이 설수 있다는 계산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시가 보유중인 비둘기는 20년전부터 사육중인 시청에 1천2백마리, 어린이대공원 6백마리, 南山공원 3백마리등 2천1백마리. 이밖에 서울시내에서는 국립묘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각각 2백~3백마리를 키우고있으나 절대수에는 모자란다.

이들 집비둘기는 지금도 서울에서 열리는 연 4~5회의 각종행사에 동원되고있으나 이중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고 시내 고가도로밑이나 운동장부근에서 헤매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집비둘기보다 번식력·귀소성이 뛰어나고 체력도 큰 레이스비둘기(傳書鳩)를 대규모 사육키로 계획을 세우고 애호가로부터 1백마리를 분양받아 어린이대공원에서 내년 한햇동안 번식시켜보기로했다. 전서구는 濟州道에서 날려도 서울로 되돌아오는 능력이있어 키우기만 한다면 보람이 크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따라 서울시는 어린이대공원안에 부지 17평을 마련, 가로 세로 50㎝규모의 사육시설 (Cage) 50개로 비둘기아파트를 짓고 내년에 2백마리, 84년 7백마리, 85년에는 4천마리로 증식하는 한편 서울대공원에서도 전서구를 사육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어서 1쌍에 최고 1천달러 (한화 75만원)상당이나되는 전서구를 계속 확보하기 어렵고 사육시설도 1개 1만원이나되는등 예산이 마련되지않아 백지화하고 말았다.

1마리의 한달 생계비가 5백원꼴이어서 1만마리를 키운다면 만만찮은 액수인 것이다.

행정에의한 증식에 한계가 발견되자 서울시는 레이스비둘기애호가를 5천명선으로 늘려 1명이 1쌍씩 키우도록 한다는등 민간의 사육붐을 조성하려는 생각도했지만 실현성이 희박하다.

비둘기가 확보되더라도 그뒤 어떻게 거둘것인가하는문제가 또 남는다. 비둘기 1쌍은 최소한 1년에 10마리의 새끼를 낳을수있어 이론대로면 1백마리가 2년후 1만마리까지 늘어날수있지만 전문가들에의하면 이처럼 한꺼번에 양산시킬경우 무리가따른다는 것이다.

13년째 사육을 맡고있는 서울시청의 사육사 金文圭씨 (47·서울城東區樂水洞4의2의2의24)에 의하면 시청비둘기는 1년에 20마리씩 죽어나간다. 자연사도있지만 오염된 서울의 하늘을 날면서 제대로 거둬지지않는것을 탓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이다.

비둘기를 번식시키고 시민과함께 어울리도록 하는 일은 도시의 문화수준과도 비례하는 것이니만큼 비둘기에대한 투자를 늘려야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鄭泰鎬기자】

여섯달새 5億털어

前科11犯 고급住宅街 무대로

서울東大門경찰서는 27일 6개월동안 5억여원어치의금품을 훔쳐온 趙世衡씨(38·전과11범·서울江南區盤浦本洞주공아파트110동506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장물취득 鄭允龍씨(36·서울西大門區弘濟2洞79의43)등 장물아비 5명을 장물알선등 혐의로 각각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趙씨는 지난달18일 낮12시30분께 서울中區獎忠洞 趙모씨집에 침입, 5·6캐럿트짜리 물방울다이아반지등 귀금속22점(싯가 3억원상당)을 훔쳐 달아난 것을 비롯, 지난4월부터 奬忠洞、城北洞、明倫洞、西橋洞、惠化洞등 고급주택가를 무대로 6개월동안모두 6차례에걸쳐 5억여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이다.

趙씨는 지난 75년에도 세차례에걸쳐 2천6백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검거돼 7년형을 복역했는데 지난3월 만기출감한뒤부터 이같은 절도행각을 해왔다.

"社長집 털자" 모의

工員5명、다이너마이트훔쳐내

서울城東경찰서는 27일 서울城東區聖水洞2街73의47 가방부품 제조업체인 천우공업사 (대표 李한천·33)의10대공원5명을 강도예비 음모및절도·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탄광에서 다이너마이트16개와 뇌관12개등을 훔쳐 사장집을폭파한뒤 금품을 털기로모의, 26일 聖水洞역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다이너마이트와 뇌관은 이들중 金모군 (16)이 지난8월중순께 고향인 강원原城郡神林面에있는 부영광업소(대표 이재실·43) 자재창고에서 훔친것으로 金군은 천우공업사에 입사한 11월초순께 鄭군등동료공원 4명에게 범행을 제의했다는것.

이들은 그동안 서울城東區中谷1洞251의29 李사장집, 동료 金모군 (18) 고향집 (전남光州) 근처의 수퍼마킷등에서 범행하려다 사람이 많아 포기한채 다시 李사장집을 털기로하고 서울로 올라왔었다는것.

콘트롤데이타 關聯 3명 징역1년宣告

서울지법 南部지원 黃大演판사는 27일 전한국콘트롤데이타 폐업과 관련, 불법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기소된 李泰姬 (28·여·노조총무부장), 朴英仙(28·여·섭외부장), 趙成姬피고인 (28·여·상무집행위원)등 3명에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李피고인과 朴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 趙피고인에게 징역1년을 각각선고했다.

쇼케孃·柳在承씨 어제 結婚式가져

【파리支社】살롱과한도인 한국인 柳在承씨 (32)와 80년도 미스 프랑스 브리지트·쇼케양 (26·한국일보11면기사)의 결혼식이 27일 하오7시 (한국시간)신부가 살고있는 프랑스 중부알리에지방 트레도마을 성당에서 올려졌다.

트레도읍의 읍장인 프리니씨의 사회로 약20분동안 진행된 결혼식에는 신랑의형 柳成龍씨 (35)와 여동생 美淑양 (27), 신부의 부모·친지들이 참석했고 8백여명의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동·서양 남녀의 이색 결혼식을 축복했다. 신부는 이날 신랑이 서울에서 준비해간 한복을 차려입고 식장에 섰으며 식이 끝난뒤『유리마 (柳씨를 지칭)를 닮은 아들과 나를 닮은 딸하나씩을 낳고싶다』고 말했다.

前民議員 朴晩元씨

2·3·4대 民議院의원을 지냈던 朴晩元씨 (경북출신)가 27일상오11시 서울龍山區漢南洞743의18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享年71세. 유족으로는 미망인 李戊鳳여사와 3남4녀가 있으며 韓炳家국회문공위원장이 둘째사위. 장지는 경북軍威郡 선영, 연락처 ⑬4066.

X머스실 贈呈받고 李順子여사, 金一封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27일상오청와대에서 金起鎬대한결핵협회회장으로부터 결핵협회가 全대통령내외분에게 증정하는 크리스머스실 1천장을 전달받고 크리스머스실대금으로 금일봉을 주었다.〈사진〉 대한결핵협회는 올해 6억5천만원을 목표로 10종의 크리스머스실을 발행했다.

아파트 工事場서 人夫 실족死

26일 하오5시께 서울江南區開浦洞529 開浦ADB차관아파트 401동 신축공사장 (시공사 대우건설)에서 인부 金榮和씨 (52·서울麻浦區孔德洞446의38)가 실족, 높이 15m아래 1층현관 시멘트 지붕위로 떨어져 숨졌다.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人間市場」

억센 사나이

베이루트의 唯一한 僑民 李聖씨

끈질긴 事業慾 "내가 왜 避難갑니까"

베이루트에는 단 한사람의 교민 李聖씨 (40·사진)가 살고있다. 무역중계업소「미들·이스트·컨트랙트앤드·트레이드」를 경영하는 李씨는 77년부터 격심한 전쟁기간을 넘기며 베이루트를 물러나지 않은 억센 사나이다.

李씨는 물론 베이루트 거주 경력으로도 최고참. 派越장병출신인 李씨는 베트남, 발렌, 바레인, 이란을 거쳐 77년9월말 베이루트에 도착했다. 한때 3백명에 이르던 한국인은 75년 내전으로 모두 철수, 공관원을 합쳐 30명으로 줄어들었다. 때문에 文昌華대사등 공관원들은 유일한 한국민간인인 李씨를「교민회장」이라 부른다.

아랍평화군이 전지역을 장악, 휴전이 이루어진 베이루트시는 새벽 4시까지 나이트·클럽이 흥청대는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는 레바논국방성에 장비납품을 하며 부인과 1남1녀까지 데려왔다.

78년3월 다시 PLO의 공격으로 2만5천 이스라엘병력이 레바논영내로 진격했고 6월엔 휴전에 따라 4천명의 유엔평화군 (UNIFIL)이 진주했다. 그러나 여름부터 시리아군및 팔랑헤 민병간에 전면 군사대결이 일어나 79년까지 계속되었다. 79년 하비브 중재에따른 휴전, 81년 베카계곡의 시리아샘·미사일 위기및 이스라엘의 PLO본부 폭격의 고비고비를 거치며 그는 장사를 계속했다. 그 북새통에서도 은행은 업무를 보고 상점도 이러저러 장사를 해온 것이 베이루트의 생명력.

그는 PLO가 철수전에 보인 태도를 칭찬했다. 82일의 항전끝에 철수하기까지 PLO병사의 태도는 의연했다는 것이다. PLO는 6월6일부터 나갈때까지 회교도주민 한사람마다 하루「고베쓰(아랍빵)」2개씩을 줄곧 무상배급했다. 『나도 꽁꽁 얼린 고기 2덩어리와 생선통조림을 PLO한테서 받았다』고 말하는 그는 사업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지녀 국방성, PLO, 팔랑헤민병대와 두루 친분을 가졌다고 했다.

『레바논의 7대수상이 피난을가지않고 있고 일부백만장자도 남아있는데 내가 왜 피난갑니까?』구변좋고 붙임성있는 그는 지금 레바논뿐 아니라 中東일대로 사업의 폭을 넓혀가며 요란하게 뛰고있다. 원래 전쟁터는 千金의 꿈을 키울수 있는 곳이기도 한것을 그는 잘 알고 있는 모양이다. 【베이루트=安炳燦특파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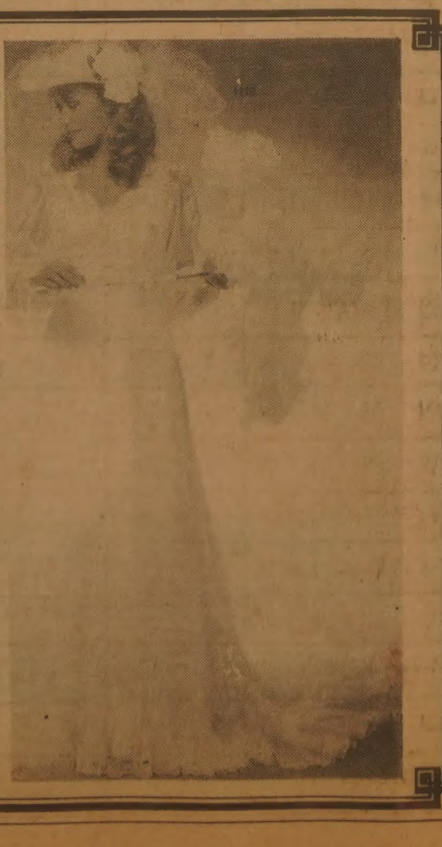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Eglinton
Bayview
Millwood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人魚자매」 물에 빠진 한국 건졌다

아시아水泳에 「崔允喜·允庭시대」 열려

"記錄 제조기" 同胞들 열광

어머니 이번엔 允庭의 금 바랬는데…

제9회 아시안게임 9일째

아시아게임에서 수영 사상 최초로 金·銀메달을 나란히 3개씩이나 따낸 崔允喜·崔允庭은 경이의 인어자매. 금년들어 允庭·允喜 자매는 배영종목에서 서로 기록경신을 경쟁적으로 거듭, 「신기록 제조기」란 별명을 얻을만큼 국내대회때마다 한국신기록을 세워놓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允喜는 언니 允庭의 그늘에 가려 큰 빛을 발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지난4월 배영 2백m에서 한국 최고기록을 경신하면서 두각, 그동안 이종목에서만 3번 한국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시즌중반에 들면서 1백m에서도 언니의 한국 최고기록을 경신, 2개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했었다.

이들은 당초부터 이번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수영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휘득할수있는 가장유력한 유망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아시아여자배영수준으로보아 이번경기에서 3위를차지한 日本의 아세리·히사에에 뒤지는기록으로 나타나 금메달은 난관한수없는처지였다.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란히 목에건 允喜·允庭자매는 담초『日本의 아세리가 78년방콕대회때 금메달을 차지했던 선수이기때문에 금메달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배영 2백m 우승후 1백m도 자신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서울에있는 어머니李景先씨(42)는『윤정이가 금메달을 차지해야했는데…. 윤희에게 이번에는 같은 조건이면 금메달을 양보하라고 말했다』며 기쁨을 감추지못했다.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金昊根기자】

◇육상8백m 金福柱의 力走 육상 8백m 결승서 金福柱(250번)가 역주, 선두로 나서고있다. 金은 은메달을 차지。【뉴델리26日 AP聯=聯】

한국、印제쳐 다시 3位

연 이틀간 금메달을 추가하지 못해 고심하던 한국선수단은 27일 金銀자매 崔允喜·允庭이 수영 여자배영1백m서 또다시 금·은메달을 추가함으로써 금메달 8개로 3위 印度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한국은 27일 남자핸드볼 B조 예선 최종전에서 中共에 29-28로 분패, 2승1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은 中共에 이어 예선 2위로 4강이 겨루는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 A조 1위의 日本과 28일 결승 진출권을 겨루게 됐다.

육상의 徐末九와 張在根은 네루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1백m예선을 통과, 28일의준결승에 올랐다.

한국은 남자단체 배드민턴 준결승서 中共에 3-0으로 패배했으나 동메달을 획득했다.

張在根·徐末九(육상 1백m) 예선통과

女하키·투창 梁殷寧 은메달

핸드볼

남자핸드볼은 중공과 가진 B조 예선리그 최종전에서 29-28로 아깝게 역전패, 2위가되어 A조1위인 일본과 준결승전을 갖게됐다. B조1위 중공은 A조2위인 쿠웨이트와 준결승전을갖는다.

▲B조예선리그최종일

중공29(15-14 / 13-15)28한국
(3승) (2승1패)

배드민턴

한국남자배드민턴은 27일 단체전 준결승에서 중공에3-0으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한국의 朴柱奉·成漢國은 단식에서 중공의 한이안·루안친에게 2-0으로 패했고, 복식에서도 朴柱奉·李恩求조가 중공에 완패했다.

한국여자 배드민턴팀은 26일 준결승에서 張愛玲등 세계정상급선수들이 버틴 중공에 4-1로 석패, 3위로확정되었다. 중공과 일본은 결승에서 金메달을 겨룬다. 인도 여자팀도 준결승에서 일본에 4-0으로 져 한국과함께 銅메달이 확정됐다.

한편 한국남자팀은 말레이지아를 4-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올라, 중공과 결승진출권을 겨루게 되었다.

한국여자배드민턴팀은 26일 인드라프라스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세계최강중공에 4-1로 패해 인도와함께 공동3위로 확정되었다.

한국여자팀은 이날 스피드, 기술, 체력등에서 모두 중공에 뒤져 세계랭킹1위이며 80년 전영오픈단식선수권자인 張愛玲에 2-0, 金練子는 전영오픈준우승자 리링웨이에 역시 2-0으로 무릎을 꿇었다.

▲여자단체준결승

중공	4-1	한국
리링웨이	2-0	金練子
창아이링	2-0	柳尙希
우딕시·린인	2-0	黃善愛·姜幸淑
우지앙궤·휴롱	1-2	金練子·柳尙希
우지앙궤	2-0	宋恩周
일본	4-0	인도

▲남자단체준준결승

한국 4-0 말레이지아

◇남자단체준결승

한이안(중공)	2(15-6 15-5)0	박주봉
루안친(중공)	2(15-11 15-6)0	성한국
야드시밍·루안친(중공)	2(15-4 17-14)0	박주봉·이은구(한국)

사격

사격속사권총에 출전한 한국의 朴鍾吉은 27일 30발사격에서 2백96점(만점 3백점)을 기록했다. 이날 베트남 푸엔·꾹·클롱은 2백98점을 얻어 첫날 단독선두를 달렸다. 속사권총은 28일 30발을더 쏘아 2일간의 합계로 승부를 가린다.

육상

27일 육상남자1백m에서 張在根과 徐末九가 예선을통과, 준결승에 진출했다. 張在根은 예선1조에서 10초89로 1위를 차지하고 예선을 통과했으며 徐末九는 10초85로 예선2조 4위를차지, 어렵게 준결승에올랐다.

한국의 金福柱는 남자8백m 결승에서 한국신및 대회신기록 1분47초55로 역주했으나 인도의 찰스·보로미오에게 1초24 뒤져 아깝게 銀메달에 그쳤다. 梁殷寧도 남자투창에서 73m62를 던졌으나 일본의 타께다에게 1m42뒤져 銀에머물렀다.

남자 4백m계주팀은 결선에 나아갔으나 중공, 태국, 일본에 밀려 노메달에 그쳤다.

牟明姬와 朴美善은 여자1백m 예선을 통과, 메달을 노리고 있다.

북한은 이날 여자8백m서 장영애가 개막식서 대표선서를 한 인도의 호프 기탄·주르시를 0·08초차로 누르고 2분5초69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 육상서 첫 金메달을 따냈다.

▲남자8백m=①찰스·보로미오(인도) 1분46초81 ②金福柱(한국) 1분47초55 ③칼레·자랄라(이라크) 1분47초73

▲남자투창=①다께다(일본) 76m04 ②梁殷寧(한국) 73m62 ③주르데즈·싱(인도) 73m50

◇梁殷寧의 힘찬 투창 육상에서 銀메달을따낸 梁殷寧의 힘찬 투창모습。【뉴델리26日 신문공동취재단聯=聯】

농구

한국남자농구팀은 탈카토라체육관서 벌어진 결승리그에서 필리핀을 132-99로 누르고 2승(예선전적포함)을 올렸다.

한국은 예선D조 1위로 올라온 필리핀을 맞아 李忠熙 林正明 辛善宇등이 맹활약, 전반을 63-40으로 크게 앞서 승부를 결정지은뒤 후반에는 2진을 기용하는여유를 보이며 33점차로 낙승했다.

한국은 27일밤 북한과 2차전을 갖는다.

한편 전대회우승팀 중공은 일본을 98-89로 누르고 2승으로 한국과 함께 선두에 나섰다.

▲결승리그

한국132(69-63 / 59-40)99필리핀
(2승) (1승1패)

중공98-89일본
(2승) (1승1패)

하키

한국여자하키가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출전, 銀메달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국여자하키팀은 26일 시바지 스타디움서 열린 일본과의 최종경기에서 CF任桂淑, 후반에서 동점골과 결승스트로크를 날린등 해트트릭의 수훈을 세워 3-2로 역전승, 말레이지아와 같은 3승1무1패를 기록했으나 골득실에서 앞서 2위에 입상했다. 홈팀 인도는 5전전승으로 금메달을, 말레이지아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여자리그

한국3(1-2 / 2-0)2일본

▲순위=①인도5승 ②한국3승1무1패 ③말레이지아3승1무1패(이상골득실차)

▲남자예선

한국3(1-1 / 2-1)2중공
(1승2패) (3패)

역도

부진을 보이던 한국역도는 26일 90kg급에서 金喆鉉이 332·5kg을들어 처음 銅메달을 따냈다.

▲90kg급=①마웬·앙(중공) 337·5kg ②메포(이란) 335kg ③金喆鉉(한국) 332·5kg

복싱

◇1회전

▲밴텀급

文成吉(한국) 기권승 자얄라트(스리랑카)

▲라이트·플라이급

편성호(네팔) 판정 유메시(네팔)

高英煥(북한) RSC 리포쇼(태국)

남자배구 대진확정 28일 중공과첫경기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

남자배구의 결승리그대진일정이 27일 확정됐다. 예선B조 1위로 예선을통과한 한국은 중공, 일본, 인도와함께 패권을 판가름하는데 28일하오9시30분(이하한국시간) 대중공전을 첫머리로 30일하오7시30분 일본과, 12월3일 낮12시30분 인도와대결한다. 또 예선각조 2위팀은 동시에 5~8위전을 갖는다.

한편 풀리그로 벌어지고있는 여자배구는 28일하오7시30분 필리핀과, 30일하오 7시30분에는 인도와, 12월2일 하오7시30분에는 일본과 각각 맞붙게된다.

◇메달중간집계 <27일 현재>

	金	銀	銅
①중공	39	29	21
②일본	34	30	22
③한국	10	17	20
④인도	10	7	8
⑤북한	7	12	14
⑥파키스탄	2	0	0
⑦쿠웨이트	1	2	1
⑧필리핀	1	1	7
⑨印尼	1	1	4
⑩이란	1	1	1
⑪몽고	1	1	0
⑫태국	0	2	1
⑬레바논	0	1	0
⑭이라크	0	0	2
⑮싱가포르	0	0	1
⑮말聯	0	0	1

◇들것에 실려나가는 金桂錫선수 ▦사이클4천m단체추발결승에 출전한 金桂錫선수가 26일 경기중 부상을입고 들것에 실려 나가고있다. 한국은 이사고로 은메달에 그쳤다.【뉴델리26日AP聯=聯】

뉴델리 소식

메달 딴 選手에게 特別상금

우리선수끼리 衝突、金놓쳐

사기 북돋기위해

◆…한국선수단본부는 매일아침6시 선수촌안에서 전날 메달을 딴 선수들에 대한 자체시상식을 갖고 금일봉을 주어 사기를 북돋우고있다. 예산에는 없었으나 金鍾烈단장이하 임원들이 선수단의 경비를 줄일수있는것은 줄여 선수들을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한것이라고. 金단장은 많은돈은 아니지만 선수들의 사기를 돋우고 자극을 주기위해 특별상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선수촌떠나기 시작

◆…경기가 끝난 일부 한국선수들이 선수촌을 떠나기 시작했다. 탁구선수들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미 출발한데 이어 일본및 하와이 교포들이 끼어있는 골프선수들도 뉴델리를 떠났다.

간디印度수상 관전

◆…여자하키 마지막경기 인도-싱가포르전이열린 시바지 스타디움에는 인디라·간디 인도수상이나와 경기를관전하고 직접 시상까지했다. 한국의 포니정도인 인도산 앰버서더 승용차를타고 5~6명의 수행원만데리고 나타난 간디수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인을해달라고 몰려드는 관중들에게 일일이 사인을해주며시상에들어갔다. 간디여사는 가지고있는 볼펜이 잘 쓰여지지 않자 수행원의 볼펜을 빌어 사인을 해주었다.

印 國民반응 냉담

◆…제9회 아시안 게임주최국인 印度당국은 1억달러나들여 개최한 이번대회에국민들이 냉담한 반응을보이고있는데 당혹하고있으며 호텔이나상점주인들도그들의판매실적에실망을나타내고있다.

대회 7일째를맞은 25일현재 내국인과 외국인관광객수가 예상만큼 많지않은 상태이며 당국이 예약해놓은 수백개의 호텔방이 여전히 비어있는 실정이다. 관광객들이 몰릴것에대비, 대회개막이전에 호텔 9개가 급히 건설됐으며 뉴델리주민들은 예상되는 식품부족사태에대비, 식품을 저장해놓고 있었다는것. 7만5천명을수용할수있는 자와할랄 네루 경기장의경우 대회개막후 이제까지 만원을 이룬적이없었다.

힌두어로 의사소통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고있는 각국선수들중 많은선수가 영어를 하지못하지만 그들은 스포츠용어를 사용, 대화를 나누거나 며칠간 배운 힌두어를사용하여 의사를 교환하고있다.

많은선수 부상입어

◆…대회개막이래 매일 약 1백여명의선수가 선수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축구·필드하키·체조선수들이 병원을찾고있는데 방글라데시의 한축구선수는 자기팀이 고르지못한 그라운드에서 연습하다 일부 선수들이 발목을 삐었다고 말했다. 수백명의 여자선수들이 性검사를 받았으나 실격한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쿠웨이트 姉妹선수 승마장애물서 金銀

◆…25일 열린 승마장애물경기에서는 쿠웨이트의 미녀선수8명이 금,은,동메달을 모두 휩쓸어 화제. 특히 같이 출전한 남자선수들을 모두 앞질러 이번아시안게임의 히로인으로 등장했는데 이들은 모두쿠웨이트대학에 재학중인 10대의 여대생. 1、2위를 차지한 니디아·알무타와와 제밀리아·알무타와는 친자매고 3위의 바라·알·사바는 쿠웨이트국방상의 딸로 승마경력은 6~8년.

4천m 단체추발서

◆…26일 야무나·벨로드롬에서 열린 사이클4천m 단체추발 결승전에서 한국은 선수끼리 충돌하는사고로 日本에 8초50이나 뒤진 기록으로 골인, 은메달에그쳤다. 金在鎬·金英童·吳允煥·李龍佑등 4명이 출전한 한국은 마지막 한바퀴반을 남기고 자전거바퀴가 부딪치면서 金桂錫이 넘어지는 바람에 기록이 극히 부진했다. 한국은 이날 상오에 가진 준결승에서 4분45초27로 대회신기록(종전4분49초08)을 세우면서 결승에 올라 제대로만 뛰었다면 금메달이가 능했었다.

◇마술 장애비월서 1, 2, 3위를 차지한 쿠웨이트 여자삼총사。

1일 남자하키決勝

◆…2일은 아시안게임 주최국 인도의 스포츠 팬들에게는 가장 가슴설레이는 날이 될것이다. 인도사람들이 국기(國技)처럼 사랑하는 하키 남자결승전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인도는 이미 26일 끝난 여자하키 5전전승으로 우승, 금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남자하키의 金메달은 만만치않다. 국경을 접하고있는숙적파키스탄이버티고있기때문이다.

【뉴델리=신문공동취재반=聯】

한국하키 처녀出戰 큰수확

세계上位水準 日本에 이겨

代表팀 16명중 11명高校生

이제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여자하키가 아시안게임 첫출전에서 은메달을 따낸것은 예상치도못한 성과였다. 더구나 세계하키의 왕국 인도에서 거둔 여자하키의 이 준우승으로 한국하키의 이미지는 인도인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게됐다.

여자하키는 4년전 첫태동을 시작,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으며 대표팀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구성돼 불과 10개월밖에 훈련을 받지못했다.

국내의 여자하키는 팀이라야 전국체전을 위해 중학교 9、고등학교13개가 있을정도. 그동안 여자팀을 지도한 朴英朝·劉永彩두코치중 朴씨는 대표팀을 지도하기위해 직장인 崇文中에 사표를냈고 劉씨는 하키팀을따라 당산중에서 양화중으로직장을옮겼다.

대표선수중에서도 16명중 5명이 오래 갖고교를졸업했고 나머지는 모두 고교생. 이처럼 모든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여자하키팀은 금년 3월 말레이지아 싱가포르전지훈련을 통해 피나는 노력을 쌓았고 최근에는 여의도 잔디구장에서 훈련, 값진 성과를 올리게됐다.

金喆鎬 타이틀방어전

장충체육관서 오르노와

◇金喆鎬

◇오로노

프로복싱 WBC슈퍼 플라이급 챔피언 金喆鎬는 28일 저녁 장충체육관에서 베네수엘라의 도전자 라파엘·오로노(동급2위)를 맞아 타이틀 6차 방어전을 벌인다. 金이 이번 타이틀방어전서 성공할 경우 朴贊希(전 WBC플라이급 챔피언)의 5차방어전 기록을깨뜨리고 타이틀 최다방어기록을 세우게 된다.

홈즈、타이틀방어

【휴스턴AP聯=聯】 프로복싱 WBC헤비급챔피언 래리·홈즈(33)는 27일 낮(한국시간) 휴스턴에서 벌어진 타이틀전에서 도전자 랜디·콥스에 판정승을 거두고 타이틀13차방어에 성공했다. 홈즈는 시종 우세한경기를 펼쳤다.

白仁天MBC 떠나 年俸인상 타결안돼

새감독에 魚友洪씨

프로야구팀 MBC 靑龍의 새감독에 魚友洪前아마추어 국가대표감독(韓電)이 내정되었다. 魚감독은 30일 정식취임할 예정이다. 白仁天감독은 MBC와의 재계약에 실패, 팀을 떠나게 되었다.

소 잃고 난후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팀 쎌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 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등…
영업시간: 수~토-5:30pm~11pm 일-5:30pm~10pm
5304 Yonge St.(at Finch)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밭식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SUN'S FRUIT MARKET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 Mr. 탐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한식·일식·서양식 겸한 요리사 구함.
전화: 496-2196(6시 이후 연락바람)

맥스밀크에서 금·토·일요일 일할 여자 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8-4867

Oakville Convenience Store 매니저 구함.
현재 주매상: $8,000이며 스탁은 캐쉬로 원함.
전화: 633-5231(Mrs. 윤), 669-1518(Mr. 유)

레스토랑 맡아서 경영하실분 구함.
전화: 859-4554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구함
전화 : 271-1482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2살반, 3살반
전화 : 247-0643(오후 8시이후)

Gas Attendent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487-2349, 924-0227

주방 여자 헬퍼 구함.(50세 미만)
전화 : 537-0432

절호의 챤스. 급성장하고 있는 스탁 중개업자가
경험있는 회계사나 또는 Training을
받으실 분 구합니다.
이력서를 보내세요: Goulding, Ross Turner Ltd.
283 Spadina Ave. Suite 208
Toronto, Ont. M5T 2E3

주말에 도넛숍에서 밤일하실분 구함.
금·토요일밤: 밤11시~아침7시.
전화 : 977-0303

여자 룸 메이트 구함.
Bathurst & Finch
전화 : 633-0127(6시이후)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1개월간 목공일 하실분(기술 필요치 안음)
AURORA 지역.
전화: 1-727-1021(낮12시~1시 연락바람) Mr. 조

오리엔탈·팔레스
한식요리사 1명, 일본식요리사 1명 구함.
전화 : 533-3545

금·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
Islington & Rexdale
전화 : 742-0800 Mr. 리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illegible]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162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송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가정용 스토브(오븐) 팝니다.
전화 : 749-2297 Mr. 조(오후6시 이후)

오픈하지 1주일된 새가게 매매.
New Plaza, New Sub. Div.
Call Guneva Real Estate 749-6677 Mr. 조

〈81년도 Dodge 스테이숀 왜곤〉
4기통, 25,000Km. $ 7,500.00
전화 : 535-4441 Mr.김

Luckey Doller Store, 비지니스 재료와 빌딩, 가족이 운영하기 좋음. Town에 있고 바쁜 Highway 옆이고 살림집 있음. 저희는 토론토 북쪽에 여러가지 스토아가 또 있읍니다.
◉아스킹: $135,000+스탁, ROYAL TRUST REAL ESTATE.
전화: (416)691-6111(토론토)
·(705)325-6193 Degraw Rben(Red)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건강이 나쁜 관계로 급히 우체국 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시민권자나 이민자라야 함. 주 Net $550(경비제외하고)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691-5297 Mr. Gilbert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500
전화 : 255-7597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3,500~4,000
비데오 머신에서 월 $800~900
5887 Bathurst St.(N. of Finch)
직접 내방 바람. 빌딩도 살 수 있음.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조건으로 양도 하겠음(George Town)
전화 : (416)877-6463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Pickering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빨리 팔기위해) 아스킹 $63,000 내렸음.
주매상:$7,200, 1,200 sq.Ft. 렌트:$500.
Plaza 내에 있음. 주인이 이사함.
Bagot Realty Inc. (Rits.)
1-579-4010 or. Frank Magnus 683-8154(저녁)

Drycleaner's Depot 매매.
◉스카보로 지역. ◉좋은 리스.
전화 : 751-7615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위치·경쟁없음
Set up한지 2개월. 주매상: $3,700+비데오(월 500수입)
증가중에 있음 ★46 Annette St. TOR.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살림집 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권리금 없음
-G.M.회사에서 가까운 바쁜 거리.
230 Ontario ST.(전화: 1-685-5863) St. Catharines.

플라자내에 있는 10개 스토아 매매. 1.2 Acres.
둘레 주변에 파킹장 있음. 새롭고 좋은 주택가.
1년 Gross 인캄 $64,000. 아스킹 $500,000.
1st 몰개지 $126,000. 13%. 다운 $1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M & CO. LTD.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올림픽스타디움 옆에 위치하고 관광객이 많이오는 좋은 위치. 배달이 없으며 두사람이 쉽게 운영할수 있음.
Beer, Wine 라이선스 있음.
시간: 아침9시~저녁11시. 주매상: $8,000
몬트리얼 지역: (514)256-8451

드라이 크리닝 매매
★ 기계있음.
전화: 923-2785(Anytime)

Hasty Market Convenience스토아 프렌차이스 매매
년매상 : 약 $1,000,000.
전화: (416)922-7849 Ken or Gord.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콘도미니움아파트 렌트. 3Bed Rm.(Jane & Eglinton지역)
◉월$700(다 포함됨) 실내수영장·사우나·체육관 있음
전화: 535-8801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 (R) Mrs.Oh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분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덕이)
전화 : 741-9170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비·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